



해외보험리포트

일본 | 인도 | 대만
홍콩 | 마카오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강윤지(1), 강윤지(2), 김가현, 김연희, 김유미, 김혜란,
손민숙, 손유영, 유성현, 이소양, 이승주, 홍보배

목 차

• 요약	1
I. 일본	3
II. 인도	13
III. 대만	23
IV. 홍콩	33
V. 마카오	42
VI. 싱가포르	50
VIII. 인도네시아	61

표 차례

〈표 I-1〉 아시아 주요국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3년)	3
〈표 I-2〉 일본 보험산업 업권별 보험료 변화 추이	4
〈표 I-3〉 일본 생명보험 수입 지출 변화 추이	5
〈표 I-4〉 일본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6
〈표 I-5〉 일본 생명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7
〈표 I-6〉 일본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7
〈표 I-7〉 일본 생명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8
〈표 I-8〉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9
〈표 I-9〉 일본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10
〈표 I-10〉 일본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11
〈표 I-11〉 일본 손해보험 대리점 및 판매직원 수 변화	11
〈표 I-12〉 일본 손해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12
〈표 II-1〉 인도 보험산업 업권별 수입보험료 변화 추이	13
〈표 II-2〉 인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해외보험료, 투자이익, 세후 순이익 등 변화 추이	14
〈표 II-3〉 인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15
〈표 II-4〉 인도 생명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16
〈표 II-5〉 인도 민영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17
〈표 II-6〉 인도 생명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18
〈표 II-7〉 인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19
〈표 II-8〉 인도 손해보험 재무성과	20
〈표 II-9〉 인도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20
〈표 II-10〉 인도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21
〈표 II-11〉 인도 손해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22
〈표 III-1〉 대만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2018~2023년)	24
〈표 III-2〉 대만 금융산업에서의 보험산업 총자산 비중(2019~2023년)	24
〈표 III-3〉 대만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25
〈표 III-4〉 대만 생명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26
〈표 III-5〉 대만 생명보험시장 상위 5개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27
〈표 III-6〉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및 비중	28
〈표 III-7〉 대만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	28
〈표 III-8〉 대만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29

〈표 III-9〉 대만 손해보험시장 상위 5개사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31
〈표 III-10〉 대만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및 비중	32
〈표 III-11〉 대만 손해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	32
〈표 IV-1〉 홍콩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2019~2023년)	34
〈표 IV-2〉 홍콩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GDP 성장률, 영업이익 추이(2019~2023년)	35
〈표 IV-3〉 홍콩 생명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점유율	35
〈표 IV-4〉 홍콩 생명보험 상위 5개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2023년)	37
〈표 IV-5〉 홍콩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18~2022년)	38
〈표 IV-6〉 홍콩 손해보험업권 원수보험료, 영업이익, 손해를 변화 추이(2019~2023년)	38
〈표 IV-7〉 홍콩 손해보험 주요 상품별 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2019~2023년)	39
〈표 IV-8〉 홍콩 손해보험시장 주요 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2022~2023년)	40
〈표 IV-9〉 홍콩 손해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20~2022년)	41
〈표 V-1〉 마카오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2018~2022년)	43
〈표 V-2〉 마카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GDP 성장률, 영업이익 추이(2018~2022년)	44
〈표 V-3〉 마카오 생명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점유율	44
〈표 V-4〉 마카오 생명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2021~2022년)	46
〈표 V-5〉 마카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2018~2022년)	47
〈표 V-6〉 마카오 손해보험 주요 상품별 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2018~2022년)	47
〈표 V-7〉 마카오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2021~2022년)	49
〈표 VI-1〉 싱가포르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	50
〈표 VI-2〉 싱가포르 보험회사 현황(2025년)	51
〈표 VI-3〉 싱가포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52
〈표 VI-4〉 싱가포르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2019~2023년)	52
〈표 VI-5〉 싱가포르 생명보험 신규계약 보험료 추이(2018~2022년)	53
〈표 VI-6〉 싱가포르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53
〈표 VI-7〉 싱가포르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19~2023년)	54
〈표 VI-8〉 싱가포르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 추이(2019~2023년)	55
〈표 VI-9〉 싱가포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56
〈표 VI-10〉 싱가포르 역내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2019~2023년)	57
〈표 VI-11〉 싱가포르 역외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2019~2023년)	58
〈표 VI-12〉 싱가포르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59
〈표 VI-13〉 싱가포르 손해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21~2023년)	59

〈표 VI-14〉 싱가포르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 추이(2022~2023년)	60
〈표 VII-1〉 인도네시아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2019~2023년)	62
〈표 VII-2〉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63
〈표 VII-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2019~2023년)	63
〈표 VII-4〉 인도네시아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64
〈표 VII-5〉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17~2021년)	65
〈표 VII-6〉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운용자산 추이(2019~2023년)	65
〈표 VII-7〉 인도네시아 샤리아 생명보험 통계(2019~2023년)	66
〈표 VII-8〉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67
〈표 VII-9〉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2019~2023년)	67
〈표 VII-10〉 인도네시아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69
〈표 VII-11〉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22~2023년)	69
〈표 VII-12〉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운용자산 추이(2019~2023년)	70
〈표 VII-13〉 인도네시아 샤리아 손해보험 통계(2019~2023년)	70

그림 차례

〈그림 I-1〉 일본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2023년)	6
〈그림 I-2〉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2023년)	10
〈그림 II-1〉 인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2023년)	15
〈그림 III-1〉 대만 생명보험 상품별 보험료 비중(2023년)	26
〈그림 III-2〉 대만 손해보험 상품별 보험료 비중(2023년)	30
〈그림 IV-1〉 홍콩 생명보험상품군별 보험료 비중(2023년)	36
〈그림 IV-2〉 홍콩 손해보험상품별 보험료 비중(2023년)	40
〈그림 V-1〉 생명보험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45
〈그림 V-2〉 개인형 생명보험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45
〈그림 V-3〉 마카오 손해보험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48
〈그림 VII-1〉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64
〈그림 VII-2〉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68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아시아 주요국 보험시장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상 7개 국가의 보험시장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일본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 세계 보험시장의 총보험료 5%를 차지하며 4위를 기록했다. 전체 보험료 중 생명보험 비중이 74.1%, 손해보험은 23.6%를 차지해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구조를 보인다. 생명보험 종목에서는 개인 생명보험이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손해보험은 자발적 자동차보험이 전체의 43.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며, 그 다음으로는 화재보험이 18.8%를 차지한다.

인도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 규모이며, 전체 보험료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비중은 각각 73.7%, 26.3%를 차지하여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이다. 생명보험 종목 중 사망보험 비중이 약 76%로 높고, 손해보험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손보 시장 모두 공영과 민영보험회사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은 공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반면, 손해보험은 2019년부터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공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대만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 세계 14위에 해당한다. 대만 보험시장은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권(69.1%)의 비중이 손해보험업권(30.9%)보다 높지만, 최근 몇 년간 생명보험업 비중이 하락했고, 손해보험업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중 사망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의 수입 증가가 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홍콩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 세계 16위로, 전체 보험산업에서 생명보험업이 8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하회하며 회복 중에 있고, 종신보험의 비중이 높다. 손해보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해·건강보험(31.7%), 재산보험(22.2%), 일상배상책임보험(22.0%)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생명보험 시장은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지만, 손해보험 시장은 비교적 시장점유율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마카오 보험시장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 생명보험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 시장이며,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높다. 생·손보 시장 모두 상위 대형 보험회사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현지 기반, 홍콩·중국 본토 또는 다국적 보험 그룹의 지점 또는 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 세계에서 22위의 규모로, 아시아 최대 캡티브 보험시장 중 하나이다.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이 69.6%, 손해보험이 30.4%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손해보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명보험은 일시납 상품의 비중이 높고, 판매채널 중 금융자문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재보험 시장 발달로 역외 시장의 비중이 높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2023년 기준 세계 보험시장에서 3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이 57.6%, 손해보험이 42.4%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에 손해보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중 투자연계형 보험상품이 수입보험료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생명보험 역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은 2020년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I

일본¹⁾

1. 보험시장 현황

- 2023년 일본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5.0%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4위를 차지함
 - Swiss Re에 따르면, 2023년 일본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약 3,627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미국(1위), 중국(2위), 영국(3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
 - 업권별로 보면, 일본의 생명보험시장은 전 세계 생명보험료의 9.6%를 차지하여 세계 3의 규모를 기록했고, 손해보험시장은 전 세계 손해보험료의 2.0%를 차지하여 8위 규모를 기록하였음
- 2023년 일본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8.9%이며, 보험밀도는 2,938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889달러)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2023년 일본 보험산업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이 약 6.8%, 손해보험이 약 2.1%임
 - 2023년 일본 보험산업 보험밀도는 생명보험이 약 2,245달러, 손해보험이 약 693달러임

〈표 I-1〉 아시아 주요국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3년)

구분	세계순위	점유율 (%)	시장규모 (백만 달러)	보험침투도 (%)	보험밀도 (달러)
일본	4위	5.0	362,719	8.9	2,938
인도	10위	1.9	135,958	3.7	95
대만	14위	1.1	78,077	10.3	3,307
홍콩	16위	0.9	65,692	17.2	8,769
싱가포르	22위	0.6	43,168	9.2	7,799
인도네시아	34위	0.3	18,353	1.3	66
마카오	-	-	4,750	21.6	6,823

주: 1) 시장 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마카오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임

자료: Swiss Re(2024), "World insurance", sigma 3/2024

1) 원문은 해외보험리포트: 일본 편(2025. 7. 1.)이며, 저자는 김연희, 손유영임

- 일본 보험시장은 2023년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 비중이 각각 76.4%, 23.6%로 생명보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생명보험업 수입보험료는 지난 5년간 일본 보험시장에서 평균 약 74%를 차지해 왔으며, 손해보험업의 원수보험료는 약 26%를 차지해 왔음
 - 지난 5년간 손해보험업의 원수보험료는 엔화 기준으로는 평균 약 12조 엔을 유지해 왔으나,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달러 기준 높은 등락을 나타냄

〈표 I-2〉 일본 보험산업 업권별 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백만 JPY,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업	JPY	37,068,810	31,103,200	33,247,210	33,065,870	40,103,280
		(0.5)	(-16.1)	(6.9)	(-0.5)	(21.3)
손해보험업	JPY	12,817,120	12,706,340	12,107,810	12,733,230	12,372,610
		(9.2)	(-0.9)	(-4.7)	(5.2)	(-2.8)
전체	JPY	49,885,930	43,809,540	45,355,030	45,799,100	52,475,890
		(2.6)	(-12.2)	(3.5)	(1.0)	(14.6)

주: 1)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2. 생명보험

- 2023년 기준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경상수입은 66.6조 엔, 경상지출은 63.4조 엔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3%, 14.6% 증가하며 수입과 지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
 - 보험료 및 기타 수입은 42.9조 엔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으며, 운용수익은 18.2조 엔으로 전년 대비 33.0%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함
 - 보험금 지급액은 42.8조 엔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으며, 투자비용은 5.0조 엔으로 전년 대비 224.6% 증가했으나, 2019년과 비교하면 20.8% 증가한 수준임
 - 책임준비금 적립액은 2020년 8조 엔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3년 2.3조 엔까지 감소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표 I-3〉 일본 생명보험 수입 지출 변화 추이

(단위: 십억 엔,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	경상수입	46,818	49,043	50,337	58,222	66,588
	보험료 및 기타 수입	33,012	30,943	32,014	38,019	42,976
	보험료 수입	31,411	29,197	29,824	34,497	37,521
	운용수익	9,078	14,126	13,180	13,669	18,178
	기타 수익	4,727	3,975	5,143	6,532	5,433
지출	경상지출	44,613	45,849	47,168	55,361	63,415
	보험금지급	29,547	30,138	31,436	39,050	42,763
	책임준비금 적립	4,829	8,021	6,785	4,302	2,266
	투자비용	4,118	1,774	1,945	1,533	4,976
	사업비	4,714	4,601	4,658	3,910	5,013
	기타 지출	1,403	1,313	1,342	1,379	1,436
경상이익		2,205	3,193	3,169	2,505	3,172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24), "Life Insurance Fact Book"

- 보험상품 유형별 수입보험료는 개인 생명보험의 보험료 비중이 약 7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 연금, 단체 연금, 단체 생명보험, 기타 순임
 - 개인 생명보험은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75%를 차지해왔으며, 2023년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는 28조 1,060억 엔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함
 - 개인 연금의 비중은 2019년 10.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조 740억 엔을 기록했고,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13.5%를 차지함
 - 단체 생명보험의 비중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성장률은 2%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단체 연금의 비중은 2019년 9.0%에서 매년 소폭 감소하며 2023년 2조 7,660억 엔으로 전체 생명수입 보험료에서 7.4%를 차지하고 있음

〈표 I-4〉 일본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십억 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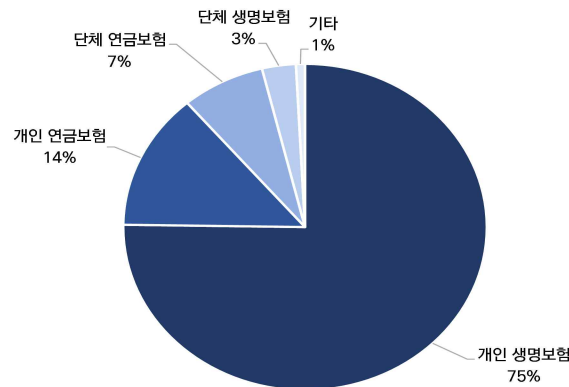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인 생명보험	23,557(75.0)	21,892(75.0)	22,296(74.8)	26,120(75.7)	28,106(74.9)
개인 연금	3,300(10.5)	3,087(10.6)	3,288(11.0)	4,015(11.6)	5,074(13.5)
단체 생명보험	1,046(3.3)	1,071(3.7)	1,093(3.7)	1,113(3.2)	1,140(3.0)
단체 연금	2,833(9.0)	2,549(8.7)	2,608(8.7)	2,764(8.0)	2,766(7.4)
기타	673(2.1)	597(2.0)	537(1.8)	484(1.4)	432(1.2)
합계	31,411(100)	29,197(100)	29,824(100)	34,497(100)	37,521(100)

주: ()안은 비중임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24), "Life Insurance Fact Book"

〈그림 I-1〉 일본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2023년)

(단위: %)



자료: AXCO(2024),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Japan"

- 일본 생명보험시장은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가 전체의 42.6%, 상위 10개사가 66.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상위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1996년부터 시작된 금융 규제 개혁으로 일본 보험산업이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갖게 되면서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 85.9%에서 2010년 78.2%, 2020년 66.5%로 감소함²⁾
 -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Nippon Life Insurance가 일본 생명보험시장 전체 수입보험료의 14.4%를 차지하며 업계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음
 - Meiji Yasuda Life Insurance, MetLife, Dai-ichi Life Insurance, Sumitomo Life Insurance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생명보험시장 점유율은 각각 9.3%, 6.9%, 6.5%, 6.4%임

2)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2018),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연구보고서

〈표 I-5〉 일본 생명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십억 엔, %)

회사명	2021년		2022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닛폰생명보험 주식회사	4,307	14.4	4,647	13.5	7.9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 주식회사	2,440	8.2	3,195	9.3	30.9
메트라이프보험(주)	1,658	5.6	2,379	6.9	43.5
다이이치 생명보험 주식회사	2,251	7.5	2,252	6.5	0.1
스미토모 생명보험 주식회사	2,140	7.2	2,214	6.4	3.4
...
합계	29,824,722		34,497,819		15.7

자료: AXCO(2024),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Japan"

○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주로 자체 영업 직원과 보험 대리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임

-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자체 영업 직원의 판매 비중은 2019년 44.7%를 기록한 후 2020년 38.8%로 감소했다가 2021년 41.6%로 증가하는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 대리점 채널은 2019년 27.4%에서 2020년과 2021년 모두 30.7%를 기록하며 비중이 확대됨
- 방카슈랑스는 2019년 19.6%에서 2020년 24.8%로 증가했으나, 2021년 22.2%로 소폭 감소함

〈표 I-6〉 일본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¹⁾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자체 영업 직원	44.7	38.8	41.6
보험 대리점	27.4	30.7	30.7
방카슈랑스	19.6	24.8	22.2
기타	8.2	5.6	5.5

주: 1) 판매채널별 비중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AXCO(2024),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Japan"

○ 2023년 일본 생명보험업의 운용자산 중 일본 정부 채권이 165.4조 엔으로 전체 자산 중 40.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으며, 2024년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익률이 낮은 채권을 매각하고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매입하는 등 자산운용 전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일본 정부 채권은 2019년 151.2조 엔에서 2023년 165.4조 엔으로 증가했고,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5%에서 40.3%로 증가했으나, 2022년의 41.7%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준임

- 2024년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익률이 낮은 일본 정부 채권을 약 2조 엔 매각했으며 매각 손실은 약 3,200억 엔이었음³⁾
- 외국 증권은 2019년 98.1조 엔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 111.5조 엔을 기록한 후 등락을 보이며 2023년 107조 엔으로 전체 자산 중 26.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표 I-7〉 일본 생명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십억 엔,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본 정부 채권	금액	151,223	157,619	162,425	165,034	165,409
	구성비	39.5	39.0	39.7	41.7	40.3
외국 증권	금액	98,128	106,297	111,531	96,980	107,054
	구성비	25.6	26.3	27.2	24.5	26.1
금융 대출	금액	27,337	26,898	26,613	26,404	26,858
	구성비	7.1	6.6	6.5	6.7	6.5
기업채권	금액	28,383	28,533	27,354	25,380	25,336
	구성비	7.4	7.1	6.7	6.4	6.2
주식	금액	18,766	25,042	24,316	24,174	33,191
	구성비	4.9	6.2	5.9	6.1	8.1
기타 증권	금액	15,203	16,604	16,076	16,433	19,101
	구성비	4.0	4.1	3.9	4.1	4.7
지방 정부 채권	금액	10,134	9,017	7,804	6,667	5,775
	구성비	2.6	2.2	1.9	1.7	1.4
기타 화폐 자산	금액	10,897	12,274	12,378	13,553	15,319
	구성비	2.8	3.0	3.0	3.4	3.7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유형 자산	금액	6,049	6,089	6,063	6,154	6,289
	구성비	1.6	1.5	1.5	1.6	1.5
기타	금액	16,998	16,148	14,775	15,350	6,127
	구성비	4.4	4.0	3.6	3.9	1.5
합계	금액	383,119	404,522	409,335	396,130	410,459

자료: AXCO(2024),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Japan"

³⁾ Bloomberg(2025. 4. 24.), "日本生命、25年度は9年ぶりに国債残高を削減-入れ替えを積極化"

3. 손해보험

○ 종목별로는 자동차 임의보험이 4조 3,500억 엔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였고, 그다음으로는 화재보험이 1조 8,690억 엔으로 18.8%의 비중을 차지함

- 자동차 임의보험은 일본 손해보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매년 4조 엔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화재보험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1조 9,290억 엔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기타 손해보험은 2019년 1조 5,490억 엔에서 2023년 1조 7,850억 엔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함
- 상해보험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각각 8,880억 엔, 6,660억 엔으로 9.0%, 6.7%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I-8〉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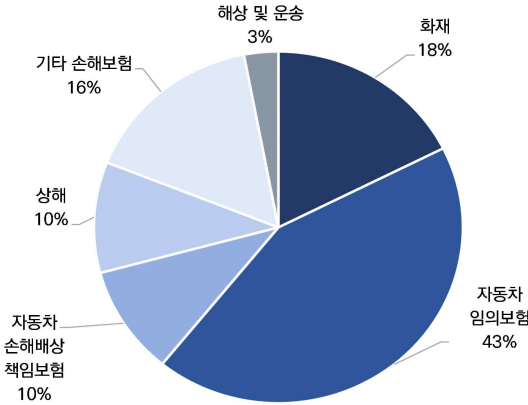
(단위: 십억 엔,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화재	금액	1,704	1,777	1,773	1,929	1,869
	비중	17.6	18.5	18.3	19.4	18.8
자동차 임의보험	금액	4,185	4,276	4,307	4,301	4,350
	비중	43.3	44.4	44.5	43.2	43.9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금액	965	810	750	760	666
	비중	10.0	8.4	7.8	7.6	6.7
상해	금액	982	894	877	895	888
	비중	10.2	9.3	9.1	9.0	9.0
기타 손해보험	금액	1,549	1,597	1,655	1,716	1,785
	비중	16.0	16.6	17.1	17.2	18.0
해상 및 운송	금액	286	274	309	358	359
	비중	3.0	2.8	3.2	3.6	3.6
총계	금액	9,671	9,627	9,671	9,959	9,91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General Insurance In Japan Fact Book" 각호

〈그림 I-2〉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2023년)

(단위: %)



자료: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General Insurance In Japan Fact Book" 각호

- 일본 손해보험시장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부터 약 87% 수준을 유지 해오고 있으며, 상위 10개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또한 2018년부터 9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 Co Ltd가 일본 손해보험시장 전체 원수보험료의 25.8%를 차지하며 업계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음
 - Sompo Japan Nipponkoa Insurance Inc., Mitsui Sumitomo Insurance Co Ltd,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 Ltd, AIG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 점유율은 각각 24.9%, 18.4%, 13.8%, 4.4%임

〈표 I-9〉 일본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십억 엔, %)

회사명	2021년		2022년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	2,514	25.8%	2,593	25.8%	3.2%
소프트뱅크닛폰코아보험 주식회사	2,421	24.9%	2,507	24.9%	3.6%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 주식회사	1,781	18.3%	1,847	18.4%	3.8%
AIOI 닛세이 도와보험(주)	1,344	13.8%	1,385	13.8%	3.0%
AIG 일반 보험 회사	443	4.5%	445	4.4%	0.5%
...
합계	9,737		10,066		3.4%

자료: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Japan"

○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대리점이 90%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직접 판매가 8.9%, 브로커가 0.9%를 차지하고 있음

- 대리점 판매 비중은 2019년 90.9% 이후 소폭 감소하며 2023년 90.2%를 기록했으나, 5년간 약 90%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음
- 브로커를 통한 판매 비중은 2019년 0.7%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0.9%를 기록함
- 직접 판매는 2019년 8.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8.9%를 기록했고, 직접 판매의 경우 주로 해상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해상 보험 거래의 약 40%가 직접 판매로 거래됨

〈표 I-10〉 일본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리점	90.9	90.7	90.5	90.2	90.2
브로커	0.7	0.8	0.9	0.9	0.9
직접 판매	8.4	8.6	8.7	8.9	8.9

자료: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Japan"

○ 손해보험 판매채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리점의 수와 판매직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대리점의 수와 판매직원의 수는 점차 감소해왔으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 전략에 따라 앞으로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대리점 수는 2019년 17만 2,191개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2023년 15만 652개를 기록했으며, 대리점 판매직원의 수 역시 2019년 205만 4,942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3년 189만 3,554명을 기록함
- 2023년 대리점 수수료는 총보험료의 16.3%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은 소규모 대리점 합병을 통해 대리점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인공지능 개발을 통한 직원 감축 및 관리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음⁴⁾

〈표 I-11〉 일본 손해보험 대리점 및 판매직원 수 변화

(단위: 개,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리점 수	172,191	165,185	160,463	156,152	150,652
대리점 판매직원 수	2,054,942	2,040,486	2,003,511	1,845,354	1,793,554

자료: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General Insurance In Japan Fact Book" 각호

4)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Japan"

○ 2023년 기준 일본 손해보험업의 운용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외국 증권으로 10조 7,020억 엔(30.6%)를 기록하였고, 그다음은 주식으로 9조 3,970억 엔(26.8%)임

- 외국 증권은 2019년 이후 5년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2019년 8조 9,170억 엔으로 29.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3년 전년 대비 7.2% 증가하며 10조 7,020억 엔을 기록하며 30.6%의 비중을 차지함
-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은 2019년 5조 5,400억 엔으로 17.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0년 이후 2023년 9조 3,970억 엔으로 다시 한번 대폭 증가하며 26.8%의 비중을 차지함
- 일본 정부 채권과 기업 채권,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유형자산은 2019년 이후 금액과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12〉 일본 손해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십억 엔,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본 정부 채권	금액	4,059	3,805	3,578	3,137	2,971
	구성비	13.2	11.8	11.0	9.9	8.5
외국 증권	금액	8,917	9,408	9,803	9,981	10,702
	구성비	29.1	29.1	30.1	31.4	30.6
금융 대출	금액	1,516	1,561	1,461	1,580	1,575
	구성비	4.9	4.8	4.5	5.0	4.5
기업채권	금액	2,853	2,939	2,895	2,651	2,702
	구성비	9.3	9.1	8.9	8.3	7.7
주식	금액	5,450	6,988	7,007	6,693	9,397
	구성비	17.8	21.6	21.5	21.1	26.8
기타 증권	금액	467	609	699	662	809
	구성비	1.5	1.9	2.1	2.1	2.3
지방 정부 채권	금액	331	376	365	320	343
	구성비	1.1	1.2	1.1	1.0	1.0
기타 화폐 자산	금액	2,519	2,560	2,670	2,491	2,220
	구성비	8.2	7.9	8.2	7.8	6.3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유형 자산	금액	857	860	832	825	819
	구성비	2.8	2.7	2.6	2.6	2.3
기타	금액	3,681	3,233	3,254	3,411	3,476
	구성비	12.0	10.0	10.0	10.7	9.9
합계	금액	30,648	32,336	32,564	31,749	35,014

자료: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Japan"

II

인도¹⁾

1. 보험시장 현황

- 인도 보험시장은 2023년 세계 보험시장의 1.9%를 차지하며 전 세계 10위 규모를 기록함
 - 인도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1,359억 달러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2위), 일본(4위), 한국(7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
 - 업권별로 보면 인도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은 각각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3.5%, 0.8%를 차지하여, 7위와 15위 규모임
- 2023년 기준 인도의 보험침투율은 3.7%이며, 보험밀도는 95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889달러)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침투도는 각각 2.8%와 1.0%이며, 보험밀도는 각각 70달러, 25달러임
- 인도 보험시장은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비중이 각각 73.7%, 26.3%로 생명보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II-1〉 인도 보험산업 업권별 수입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백만 USD,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업	72,673(74.9)	80,791(75.7)	84,690(75.6)	92,953(75.0)	97,371(75.0)	100,185(73.7)
손해보험업	24,669(25.1)	27,102(24.3)	27,221(24.4)	30,062(25.0)	32,394(25.0)	35,773(26.3)
전체	97,342	107,893	111,911	123,016	129,765	135,958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1) 원문은 해외보험리포트: 인도 편(2024. 10. 29.)이며, 저자는 손유영, 유성현임

2. 생명보험

- 2022년 기준 인도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782,504 천만 루피아로, 전년 대비 7.0% 증가함²⁾
 - 2022~2023년도 투자 이익은 민영보험회사의 투자 이익 축소로 2023년 전년 대비 약 6.64% 감소함
 - 2022~2023년도 세후이익(Profit After Tax; PAT)은 4,279억 루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함
 - 공영 보험회사의 이익은 800% 증가하였으며, 민영 보험회사들의 이익은 72.36% 증가함
 - 공영 보험회사의 이익은 가용 지급여력(Available Solvency Margin)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해당 회계 기간의 수익으로 처리되도록 회계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크게 증가함
 - 2023년 기준, 생명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솔벤시 마진 비율은 150%이며, 2023년 인도 생명보험공사의 솔벤시 비율은 187%로 전년 대비 2%p 증가함

〈표 II-2〉 인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해외보험료, 투자이익, 세후 순이익 등 변화 추이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8~2019년	2019~2020년	2020~2021년	2021~2022년	2022~2023년
수입보험료	금액	508,132	572,910	628,731	692,614	782,504
해외보험료	금액	370.27	378.26	400.34	419.7	404.78
지급보험금	금액	329,678	351,467	398,772	502,097	496,865
운영비용	금액	51,130	60,121	61,422	71,435	89,443
	비율	10.06	10.49	9.77	10.31	11.43
투자이익	금액	284,800	233,744	466,030	416,711	389,062
	성장률	8.78	-17.93	99.38	-10.58	-6.64
세후 순이익	금액	8,436	7,728	8,661	7,751	42,788
	성장률	-0.89	-8.39	12.07	-10.51	452.03
Solvency 마진 비율		160	155	176	185	187
실질 GDP 성장률		3.9	-5.8	9.7	7.0	7.8

주: Solvency II 비율은 공영부문(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종목별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Life)의 보험료의 비중이 약 76%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퇴직연금(Pension), 연금보험(Annuity) 순임³⁾

²⁾ Swiss Re(2023), "World insurance", sigma 3/2023

- 2023년 사망보험 보험료는 5조 9,722억 루피로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 퇴직연금(Pension)은 1조 4,863억 루피로 18.99%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연금보험(Annuity)의 경우 2019년도 약 6.5%에서 2023년 4.3%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표 II-3〉 인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¹⁾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8~2019년	2019~2020년	2020~2021년	2021~2022년	2022~2023년
연금보험 (Annuity)	금액	32,810	43,657	31,594	27,856	33,637
	비중	6.46	7.62	5.03	4.02	4.30
건강보험 (Health)	금액	891	844	820	798	741
	비중	0.18	0.15	0.13	0.12	0.09
사망보험 (Life)	금액	415,951	432,873	482,677	534,304	597,221
	비중	81.86	75.56	76.77	77.114	76.32
퇴직연금 (Pension)	금액	52,503	88,451	109,830	124,526	148,625
	비중	10.33	15.44	17.47	17.98	18.99
변액보험 (Variable)	금액	5,978	7,085	3,811	5132	2,279
	비중	1.18	1.24	0.61	0.74	0.29
합계	금액	508,132	572,910	628,731	692,614	782,504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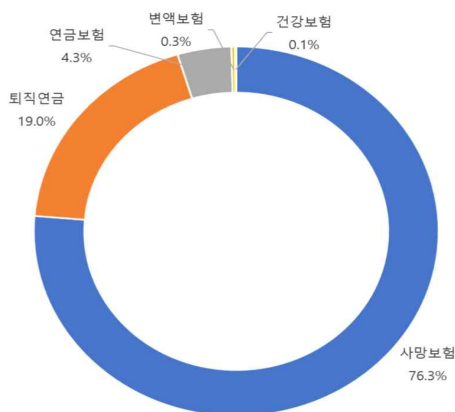
주: 1) 위 수입보험료는 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의 총합임

2)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반올림 오차로 인해 각 합계치는 단순 합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그림 II-1〉 인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2023년)

(단위: %)



자료: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3) IRDAI, "Annual Report", 각호

- 인도 생명보험시장에는 2023년 기준 1개의 공영 생명보험회사와 24개의 민영생명보험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⁴⁾ 상위 5개 민영보험회사의 민영시장 점유율은 약 69%임
 - 2022~2023년 민영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307,836 천만 루피로 전체 생명보험에서 39.3%를 차지함
 - 상위 5개 민영보험회사 SBI Life Insurance Co. Ltd., HDFC Life Insurance Co. Ltd., ICICI Prudential Life Insurance Co. Ltd., Max Life Insurance Co. Ltd., Tata AIA Life Insurance Co. Ltd.의 민영보험 시장점유율은 각각 22.1%, 18.9%, 13.1%, 8.3%, 6.7%임
 - SBI Life는 2000년 10월 설립되어 인도의 다국적 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와 프랑스의 생명보험회사인 BNP Paribas Cardif의 합작투자자로 설립되었으며, SBI의 광범위한 은행 네트워크와 BNP Paribas Cardif가 가진 생명보험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함
 - 공영 보험회사인 인도 생명보험공사(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의 2022~2023년 수입보험료는 474,668 천만 루피로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약 60.7%를 차지함

〈표 II-4〉 인도 생명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천만 INR, %)

회사명	2021~2022년		2022~2023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공영보험회사	428,025	61.80	474,668	60.66	10.90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428,025	61.80	474,668	60.66	10.90
민영보험회사	264,589	38.20	307,835	39.34	16.34
SBI Life Insurance Co. Ltd.	58,760	8.48	67,316	8.60	14.56
HDFC Life Insurance Co. Ltd.	45,963	6.64	57,533	7.35	25.17
ICICI Prudential Life Insurance Co. Ltd.	37,458	5.41	39,933	5.10	6.61
Max Life Insurance Co. Ltd.	22,414	3.24	25,342	3.24	13.06
Tata AIA Life Insurance Co. Ltd.	14,445	2.09	20,504	2.62	41.94
...
합계	692,614	100.00	782,504	100.00	12.98

주: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자료: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 수입보험료 기준 민영생명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⁵⁾ 채널 비중이 50% 이상으로 제일 크고, 그다음으로 설계사, 직판의 비중이 높음

4)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5) 법인 대리인-은행은 Corporate Agents-Banks를 의미함

- 2023년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53.2%로, 2016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설계사 채널은 2014년 40.1%에서 2023년 26.1%로 감소하였으며, 직판의 비중은 같은 기간 7.4%에서 13.2%로 5.8%p 증가함
- 반면 인도 생명보험공사(LIC)의 경우, 약 96%가 설계사에 의해 판매되며, 약 3%가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되어 인도 생명보험공사와는 차이를 보임

〈표 II-5〉 인도 민영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¹⁾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²⁾	2023년
설계사	40.1	35.7	31.9	30.1	27.9	25.6	24.6	23.0	22.9	23.1
방카슈랑스	43.6	47.4	51.7	53.5	54.2	53.9	52.7	54.6	54.8	53.2
법인 보험대리점-기타	4.0	3.4	3.0	3.0	2.9	2.9	3.0	3.3	3.4	3.9
중개사	4.9	4.5	3.6	3.0	2.9	2.9	3.4	2.8	3.4	5.1
기타	7.4	9.0	9.8	10.4	12.1	14.7	16.3	16.3	15.5	14.7

주: 1) 판매채널별 비중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구분 중 기타에는 직판, MI 대리점, CSCs, 보험 마케팅 회사, 온라인, PoS(Point of Sales) 등이 포함됨

3) 민영생명보험회사 판매비중을 계산할 때 SAHI는 제외됨

4)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인도 생명보험업의 자산운용은 중앙정부 국채 투자가 전체 자산운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3월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총 자산은 54.6조 루피였으며 이 중 88.85%가 전통적인 펀드에서, 나머지 6.1조 루피가 ULIP 펀드⁶⁾에서 발생함
 - 전통적인 펀드에서 2022~2023 중앙정부 국채는 44.95%, 지방정부 채권 23.95%, 주택 및 인프라 9.42%, 승인된 투자⁷⁾는 18.82%의 비중을 차지함
- 인도 보험업법 27조에서는 모든 생명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에게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 생명보험업의 경우 투자 규제에 따라 중앙정부 국채에 25%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중앙정부 국채 투자를 포함하여 50% 이상을 중앙정부 국채 또는 지방정부 채권에 투자해야 함

⁶⁾ ULIP(Unit-Linked Insurance Products) 펀드란, 보험과 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의 일부는 생명보험 보장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는 구조이며 인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음

⁷⁾ 승인된 투자(Approved Investments)란, 인도 보험업법 27A에 명시된 투자를 나타냄. 다만 이중 다른 나라에 위치한 부동산은 제외하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매우 강함(Very strong)' 이상의 평가를 받은 담보 대출, 예금, 사채, 채권, 기타 부채 상품, 주식 및 우선주 등이 포함됨(예: Standard and Poor의 AA등급)

〈표 II-6〉 인도 생명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8-2019년	2019-2020년	2020-2021년	2021~2022년	2022~2023년	
전통펀드	중앙정부 국채	금액	1,215,622	1,405,754	1,671,268	1,895,074	2,182,289
		구성비	38.94	39.97	42.23	43.46	44.95
	지방정부 채권	금액	867,521	965,846	1,043,770	1,079,100	1,160,415
		구성비	27.79	27.46	26.38	24.75	23.9
	주택 및 인프라	금액	253,187	275,434	416,718	394,524	457,272
		구성비	8.11	7.83	10.53	9.05	9.42
	승인된 투자 ¹⁾	금액	661,247	732,023	680,935	836,597	913,359
		구성비	21.18	20.81	17.21	19.19	18.82
	기타 투자	금액	124,141	138,145	144,452	155,341	141,084
		구성비	3.98	3.93	3.65	3.56	2.91
	소계	금액	3,121,717	3,517,202	3,957,144	4,360,637	4,854,419
		구성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ULIP 펀드	승인된 투자	금액	378,781	349,193	475,204	525,205	550,523
		구성비	92.07	93.60	90.89	88.78	90.4
	기타 투자	금액	32,645	23,879	47,626	66,346	58,472
		구성비	7.93	6.40	9.11	11.22	9.6
	소계	금액	411,425	373,072	522,830	591,550	608,995
		구성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합계	금액	3,533,143	3,890,274	4,479,973	4,952,187	5,463,414	

주: 1) 승인된 투자(Approved Investments)란, 인도 보험업법 27A에 명시된 투자를 나타냄. 다만 이중 다른 나라에 위치한 부동산은 제외하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매우 강함(Very strong)' 이상의 평가를 받은 담보 대출, 예금, 사채, 채권, 기타 부채 상품, 주식 및 우선주 등이 포함됨(예: Standard and Poor의 AA등급)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IRDA(2000), "(Investment) Regulations, 2000"

3. 손해보험

- 2023년 기준 인도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2조 5,689억 루피(약 309억 달러)로,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6.4%를 기록했으며, 실질 GDP 성장률(7.8%)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 종목별로는 건강보험이 9,766억 루피로 38%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자동차보험이 8,128억 루피로 31.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은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지원 정책, 의료 비용의 상승, 인슈어테크의 혁신 등을 기반으로 2023년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21.3%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1인당 소득의 증가와 낮은 차량 보급률,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원수보험료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3년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5.4%를 기록함

〈표 II-7〉 인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8~2019년	2019~2020년	2020~2021년	2021~2022년	2022~2023년
화재보험	금액	11,667	15,728	20,112	21,551	23,936
	비중	(6.9)	(8.3)	(10.1)	(9.8)	(9.3)
해상보험	금액	3,238	3,532	3,488	4,167	5,058
	비중	(1.9)	(1.9)	(1.8)	(1.9)	(2.0)
자동차보험	금액	64,522	68,951	67,792	70,433	81,280
	비중	(38.1)	(36.5)	(34.1)	(31.9)	(31.6)
건강보험	금액	50,833	56,865	63,752	80,502	97,663
	비중	(30.0)	(30.1)	(32.1)	(36.5)	(38.0)
기타	금액	39,186	43,839	43,568	44,045	48,955
	비중	(23.1)	(23.2)	(21.9)	(20.0)	(19.1)
합계	금액	169,448	188,916	198,714	220,700	256,89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2023년 3월 31일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총 납입 자본금은 4,037억 루피로 전년도(3,785억 루피) 대비 6.7% 증가했으며, 2022~2023년 회계연도 동안 투자이익은 총 3,884억 루피로 전년도(3,255억 루피) 대비 19.3% 증가함
 - 비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비용과 운영비용은 각각 2,014억 루피, 5,486억 루피로 전년도 대비 19%, 32.3% 증가함
 - 보험인수손익은 3,280억 루피로 전년도(3,181억 루피) 대비 3.1% 증가함
 - 공영보험회사의 보험인수손실이 2,532억 루피로 전체 보험인수손실의 77%를 차지함
 - 세후손실은 256억 루피로 전년도(286억 루피) 대비 소폭 감소함
 - 공영보험회사의 손실액이 1,061억 루피를 기록했으며, 민영보험회사의 순이익은 466억 루피, 특화보험회사의 순이익은 293억 루피, 건강보험회사의 순이익은 45억 루피를 기록함

〈표 II-8〉 인도 손해보험 재무성과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납입 자본금	16,517	21,360	32,842	37,855	40,375
수수료 비용	12,277	13,893	15,409	16,931	20,144
운영비용	28,624	35,844	38,281	41,455	54,856
투자 이익					
금액	26,288	28,605	29,743	32,546	38,839
성장률	5.1	8.8	4.0	9.4	19.3
세후 순이익					
금액	683	-1,494	3,852	-2,856	-2,565
성장률	-90.1	-318.7	-357.8	-174.1	-10.2
보험인수손익	-22,319	-23,719	-20,038	-31,809	-32,797
배당금	647	1,306	1,001	1,197	1,206

주: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 손해보험업 판매채널은 중개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RTL 설계사와 법인 보험대리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개사 채널의 비중은 2019~2020년 25.94%에서 증가하여 36%를 차지함
- 설계사·방카슈랑스·법인 보험대리점 채널 비중은 2019~2020년 34.6%에서 2022~2023년에는 28%로 감소함
- 소액보험 대리점⁸⁾의 경우 저소득층 및 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보험 판매채널로 비중이 매우 적음

〈표 II-9〉 인도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¹⁾

(단위: %)

구분	2019~2020년	2020~2021년	2021~2022년	2022~2023년
설계사	24.2	24.3	22	20
방카슈랑스	6.4	5.9	5.5	5
법인 보험대리점-기타	4	3.5	3	3
중개사	25.9	30.1	35.1	36
직판 ²⁾	28.4	25.9	25.4	25
기타 ³⁾	11.1	10.3	9	11
합계	100	100	100	100

주: 1) 판매채널별 비중은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판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함
 3) 기타 항목은 추천 제도, 소액보험대리점 등이 포함됨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8) 인도보험감독청(IRDAI)은 2015년 소액보험 규제 수정을 통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협동조합에서 저소득층과 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소액보험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인도의 손해보험시장은 공영보험회사와 민영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특화보험회사로 구분되며, 공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2023년 3월 기준 손해보험회사 25개, 건강보험회사 5개, 특화보험회사 2개, 재보험회사 12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공영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 4개, 특화보험회사 2개, 재보험회사 1개임⁹⁾
- 2023년 원수보험료 기준 공영보험회사인 The New India Assurance Co. Ltd.가 14.4%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 민영보험회사인 ICICI Lombard General Insurance Co. Ltd.가 8.0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성장률은 건강보험회사가 2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영보험회사 20.22%, 공영보험회사 10.2%, 특화보험회사 5.12% 순으로 나타남

〈표 II-10〉 인도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천만 INR, %)

회사명	2022년		2023년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공영보험회사	78,335	34.97	86,325	33.16	10.20
United India Insurance Co. Ltd.	15,722	7.02	17,644	6.78	12.23
The New India Assurance Co. Ltd.	35,516	15.86	37,482	14.40	5.54
...
민영보험회사	109,753	49.00	131,942	50.68	20.22
ICICI Lombard General Insurance Co. Ltd.	17,977	8.03	21,025	8.08	16.96
HDFC ERGO General Insurance Co. Ltd.	13,498	6.03	16,636	6.39	23.25
...
건강보험회사	20,867	9.32	26,244	10.08	25.77
Star Health and Allied Insurance Co. Ltd.	11,463	5.12	12,952	4.98	12.99
Care Health Insurance Co. Ltd.	3,881	1.73	5,142	1.98	32.48
...
특화보험회사	15,047	6.72	15,817	6.08	5.12
Agriculture Insurance Co of India Ltd	13,940	6.22	14,620	5.62	4.87
Export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of India Ltd.	1,107	0.49	1,198	0.46	8.22
합계	224,003	100.00	260,328	100.00	16.22

자료: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⁹⁾ IRDAI(2023), "Annual Report 2022-2023"

○ 인도 손해보험업의 경우 2023년 중앙정부 국채에 30.9%, 지방정부 채권에 20.6%를 투자하며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자산운용은 중앙정부 국채가 30.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지방정부 채권(20.6%), 승인된 투자(22.7%), 인프라(14.2%), 부동산(8.8%) 순임
 - 손해보험업의 경우 투자 규제에 따라 중앙정부 국채에 2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중앙정부 국채 투자를 포함하여 30% 이상을 중앙정부 국채 또는 지방정부 채권에 투자해야 함
- 2019년 이후 손해보험업의 운용자산 구성비를 볼 때 중앙정부 국채 및 지방정부 채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승인된 투자 및 인프라, 부동산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표 II-11〉 인도 손해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천만 IN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앙정부 국채	금액	61,546	69,750	91,089	103,130	132,774
	구성비	24.2	23.9	26.1	26.7	30.9
지방정부 채권	금액	40,455	50,314	69,585	83,491	88,464
	구성비	15.9	17.2	20.0	21.6	20.6
부동산	금액	26,161	27,791	28,404	31,122	37,703
	구성비	10.3	9.5	8.1	8.1	8.8
인프라	금액	44,143	48,203	57,572	58,402	60,778
	구성비	17.4	16.5	16.5	15.1	14.2
승인된 투자 ¹⁾	금액	72,443	85,086	92,098	96,625	97,655
	구성비	28.5	29.1	26.4	25.0	22.7
기타	금액	9,652	11,043	10,023	13,437	11,956
	구성비	3.8	3.8	2.9	3.5	2.8
합계	금액	254,400	292,187	348,770	386,206	429,3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승인된 투자(Approved Investments)란, 인도 보험업법 27A에 명시된 투자를 나타냄. 다만 이중 다른 나라에 위치한 부동산은 제외하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매우 강함(Very strong)' 이상의 평가를 받은 담보 대출, 예금, 사채, 채권, 기타 부채 상품, 주식 및 우선주 등이 포함됨(예: Standard and Poor의 AA등급)

2)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자료: IRDAI, "Annual Report", 각호

III

대만¹⁾

1. 보험시장 현황

- 2023년 대만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1.1%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4위를 차지함
 - Swiss Re에 따르면 2023년 대만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약 781억 달러이며,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2위), 일본(4위), 한국(7위), 인도(10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음
 - 업권별로 보면 대만 생명보험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1.9%를 차지하여 12위 규모이고, 손해보험시장은 전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0.6%를 차지하여 17위 규모임
- 2023년 대만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10.3%이고 보험밀도는 3,307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889달러)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임
 - 2023년 대만 보험산업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업이 약 7.1%, 손해보험업이 약 3.2%임
 - 2023년 대만 보험산업 보험밀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 각각 2,285달러, 1,022달러임
- 대만 보험시장은 2023년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 비중이 각각 69.1%, 30.9%로 최근 몇 년간 생명보험업 비중이 하락했고, 손해보험 비중이 크게 상승함
 - 2018~2023년간 대만 생명보험업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그 비중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18~2023년간 대만 손해보험업의 수입보험료는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함

1) 원문은 해외보험리포트: 대만 편(2025. 4. 8.)이며, 저자는 강윤지(2), 이소양임

〈표 III-1〉 대만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2018~2023년)

(단위: 백만 USD,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	102,044(83.7)	97,423(82.7)	91,155(80.5)	89,059(78.5)	61,949(72.3)	53,956(69.1)
손해보험	19,864(16.3)	20,401(17.3)	22,150(19.5)	24,364(21.5)	23,788(27.7)	24,121(30.9)
전체	121,908	117,823	113,304	113,424	85,737	78,077

주: 괄호 안은 구성비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 2023년 기준 대만 전체 금융산업 총자산 중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총자산의 비중은 33.7%임

- 2023년 대만 금융산업의 총자산은 104조 9,114억 대만 달러였으며, 그중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35조 3,818억 대만 달러임
 -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34조 9,102억 대만 달러로 전체 금융산업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였으며, 손해보험산업은 4,717억 대만 달러로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총자산의 비중은 0.4% 정도임
- 금융산업에서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36.3%에서 2023년 33.7%로 2.6%p 감소함

〈표 III-2〉 대만 금융산업에서의 보험산업 총자산 비중(2019~2023년)

(단위: 백만 대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	금액	29,392,070	31,752,150	33,342,137	33,623,783	34,910,157
	비중	35.47	35.85	35.58	33.72	33.28
손해보험	금액	384,536	411,375	453,214	451,979	471,656
	비중	0.46	0.46	0.48	0.45	0.45
전체 보험산업	금액	29,776,606	32,163,525	33,795,351	34,075,762	35,381,813
	비중	35.93	36.32	36.07	34.17	33.73
전체 금융산업		82,870,057	88,559,770	93,705,551	99,715,791	104,911,494

주: 괄호 안은 구성비임

자료: Taiwan Insurance Institute(2024), "Ratio of Assets of Insurance Industry to Total Assets of Financial Institutions"

2. 생명보험

- 2023년 대만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2조 1,879억 대만 달러였으며, 사망보험(Life)이 가장 큰 비중(68.1%)을 차지함
 - 2023년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1조 4,905억 대만 달러로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6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건강보험(Health)이 4,336억 대만 달러로 19.8%의 비중을 차지함
 - 최근 종목별 수입보험료 중에서 사망보험(Life)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강보험(Health)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사망보험의 경우 2019년 약 77.8%에서 2023년 약 68.1%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건강보험은 2019년 약 11.1%에서 2023년 19.8%로 비중이 증가함
 - 상해보험(Accident)의 경우 2019년 약 2.0%에서 2023년 3.4%로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음
 - 연금보험(Annuity)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부터 비중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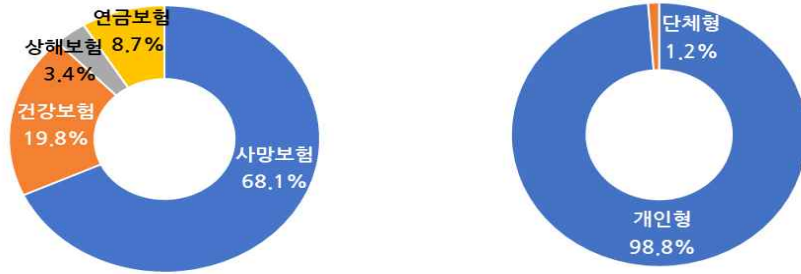
〈표 III-3〉 대만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대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망보험 (Life)	금액	26,969	23,965	19,774	15,696	14,905
	비중	77.8	75.8	66.6	67.2	68.1
건강보험 (Health)	금액	3,861	3,997	4,078	4,189	4,336
	비중	11.1	12.6	13.7	18.0	19.8
상해보험 (Accident)	금액	677	675	674	690	732
	비중	2.0	2.1	2.3	2.9	3.4
연금보험 (Annuity)	금액	3,159	3,002	5,184	2,769	1,907
	비중	9.1	9.5	17.4	11.9	8.7
합계	금액	34,666	31,639	29,711	23,344	21,87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Taiwan Insurance Institute(2024), "2023 Life Insurance Business In Taiwan"

〈그림 Ⅲ-1〉 대만 생명보험 상품별 보험료 비중(2023년)



자료: Taiwan Insurance Institute(2024), "2023 Life Insurance Business In Taiwan"

○ 대만 생명보험시장에서는 개인형 상품이 단체형 상품보다 훨씬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음

-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개인형 상품의 비중은 98.8%, 단체형 상품은 1.2%로 나타남
- 사망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의 경우 각각 개인형 상품의 비중이 99.6%, 97.4%, 99.8%임
- 상해보험의 경우 개인형 상품 88.4%, 단체형 상품의 비중이 11.6%로 생명보험 상품 중 단체형 상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4〉 대만 생명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대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망보험 (Life)	개인	26,923(99.8)	23,917(99.8)	19,724(99.8)	15,642(99.7)	14,848(99.6)
	단체	46(0.2)	49(0.2)	50(0.2)	54(0.3)	57(0.4)
	합계	26,969(100.0)	23,966(100.0)	19,774(100.0)	15,696(100.0)	14,905(100.0)
건강보험 (Health)	개인	3,758(97.3)	3,895(97.5)	3,983(97.7)	4,085(97.5)	4,225(97.4)
	단체	103(2.7)	102(2.5)	96(2.3)	104(2.5)	111(2.6)
	합계	3,861(100.0)	3,997(100.0)	4,079(100.0)	4,189(100.0)	4,336(100.0)
상해보험 (Accident)	개인	600(88.6)	601(89.0)	601(89.2)	614(89.0)	647(88.4)
	단체	77(11.4)	74(11.0)	73(11.8)	76(11.0)	85(11.6)
	합계	677(100.0)	675(100.0)	674(100.0)	690(100.0)	732(100.0)
연금보험 (Annuity)	개인	3,152(99.8)	2,997(99.8)	5,179(99.9)	2,764(99.8)	1,903(99.8)
	단체	7(0.2)	5(0.2)	5(0.1)	5(0.2)	4(0.2)
	합계	3,159(100.0)	3,002(100.0)	5,184(100.0)	2,769(100.0)	1,907(100.0)
합계	개인	34,433(99.3)	31,510(99.3)	29,487(99.3)	23,105(99.0)	21,623(98.8)
	단체	233(0.7)	230(0.7)	224(0.7)	239(1.0)	256(1.2)
	전체	34,666(100.0)	31,740(100.0)	29,711(100.0)	23,344(100.0)	21,879(100.0)

주: 괄호 안은 구성비임

자료: Taiwan Insurance Institute(2024), "2023 Life Insurance Business In Taiwan"

○ 2023년 기준 대만에서는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의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3.5%를 차지함

- 2023년 기준, Cathay Life Insurance가 대만 생명보험시장 전체 수입보험료의 21.3%를 차지하며 업계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음
 - Fubon Life Insurance, Nan Shan Life Insurance, Shin Kong Life Insurance, China Life Insurance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생명보험시장 점유율은 각각 14.8%, 12.4%, 7.7%, 7.3%임
- 대만의 상위 10개의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률은 5.7% 감소하였고 그중 9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TransGlobe Life Insurance가 유일하게 0.3% 성장함

〈표 III-5〉 대만 생명보험시장 상위 5개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대만 달러, %)

순위	회사명	2022년		2023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Cathay Life Insurance	480,430	20.9	465,602	21.3	-3.1
2	Fubon Life Insurance	346,170	15.0	323,681	14.8	-6.5
3	Nan Shan Life Insurance	295,116	12.8	270,121	12.4	-8.5
4	Shin Kong Life Insurance	189,462	8.2	167,512	7.7	-11.6
5	China Life Insurance	179,337	7.8	159,552	7.3	-11.0
생명보험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		1,628,469	70.7	1,522,234	69.7	-6.5
생명보험 상위 10개사 시장점유율		1,991,532	86.5	1,877,623	85.8	-5.7

자료: AXCO(2024),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대만 생명보험업권의 자산운용은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3년 말 대만 생명보험업계의 자산은 34조 9,102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함
- 유가증권 보유액은 2022년 기준 25조 9,023억 대만 달러에서 2023년 기준 27조 835억 대만 달러로 4.6% 성장함
- 현금 및 예치금의 비중은 2019년 5.61%에 비해 2023년 2.70%로 약 51.9%가 감소함
- 운용자산 구성 비중에서 대출채권 또한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3.85%에서 2023년 3.53%로 하락함

〈표 III-6〉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및 비중

(단위: 백만 대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Cash & Cash in bank)	금액	1,652,824	1,772,800	1,482,728	1,077,674	943,962
	비중	5.61	5.58	5.61	3.21	2.70
유가증권 (Securities Investment)	금액	21,839,971	23,779,282	25,219,608	25,902,268	27,083,544
	비중	74.17	74.88	74.17	77.04	77.58
부동산 (Property)	금액	1,233,306	1,382,299	1,417,753	1,470,948	1,517,777
	비중	4.19	4.35	4.19	4.37	4.35
유형자산 (Property & Equipment)	금액	137,686	129,055	142,022	142,751	145,349
	비중	0.47	0.41	0.47	0.42	0.42
대출채권 (Loans)	금액	1,412,594	1,352,587	1,337,413	1,295,055	1,232,216
	비중	4.80	4.26	4.80	3.85	3.53
기타 자산 (Others)	금액	3,170,872	3,340,307	3,702,393	3,734,632	3,987,309
	비중	10.77	10.52	10.77	11.11	11.42
총계	금액	29,477,253	31,756,330	33,301,917	33,623,328	34,910,157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Taiwan Insurance Institute(2024), "2023 Life Insurance Business In Taiwan"

○ 대만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에서 방카슈랑스가 가장 높은 비중(52.0%)를 차지하고 그 뒤로는 보험설계사(39.0%)로 나타남

- 대만 생명보험시장에서 방카슈랑스와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III-7〉 대만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

(단위: %)

채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험설계사(Agents)	43.4	40.2	39.6	39.0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50.3	53.4	52.9	52.0
기타	6.3	6.4	7.5	9.0

주: 2025년 기준 업데이트 된 판매채널시장 자료는 2020년이 가장 최신 자료임
 자료: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3. 손해보험

○ 대만 손해보험시장 2023년 원수보험료는 2,447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7% 성장하였음

- 대만 손해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수입 증가가 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 화재보험의 경우 2019년 258억 대만 달러에서 2023년 406억 대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은 11.9%로 나타났고 2022년 대비 2023년 성장률은 21.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해상보험은 2019년 71억 대만 달러에서 2023년 105억 대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은 10.2%로 나타났고 2022년 대비 2023년 성장률은 11.5%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은 2019년 946억 대만 달러에서 2023년 1,255억 대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은 7.3%로 나타났고 2022년 대비 2023년 성장률은 8.2%로 나타남
- 건강보험은 2019년 29억 대만 달러에서 2023년 41억 대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은 8.2%로 나타났고, 2022년 대비 2023년의 원수보험료는 31.2%로 급감함

〈표 III-8〉 대만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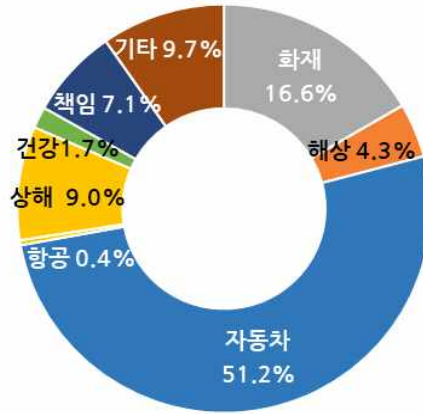
(단위: 백만 대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화재 (Fire)	금액	25,881	29,095	30,347	33,524	40,622
	비중	14.61	15.47	14.63	15.16	16.60
해상 (Marine)	금액	7,122	7,709	8,397	9,435	10,520
	비중	4.02	4.10	4.05	4.27	4.30
자동차 (Automobile)	금액	94,653	101,586	108,937	116,012	125,536
	비중	53.44	54.00	52.51	52.45	51.29
항공 (Aviation)	금액	707	808	625	721	966
	비중	0.40	0.43	0.30	0.33	0.40
상해 (Accident)	금액	19,203	18,497	18,700	19,666	22,005
	비중	10.84	9.83	9.01	8.89	8.99
건강 (Health)	금액	2,963	2,731	5,347	5,893	4,054
	비중	1.67	1.45	2.58	2.66	1.66
책임 (Liability)	금액	13,518	13,278	14,799	16,251	17,323
	비중	7.63	7.06	7.13	7.35	7.08
기타 (Others)	금액	13083	14466	20296	19705	23732
	비중	7.39	7.69	9.78	8.91	9.7
합계	금액	177,130	188,110	207,448	221,207	244,758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기타는 기술보험(engineering), 신용보험(credit) 등을 포함함

자료: Taiwan Insurance Institute(2024), "Direct Written Premiums by Line of Business(2019-2023)"

〈그림 III-2〉 대만 손해보험 상품별 보험료 비중(2023년)



주: 기타는 기술보험(engineering), 신용보험(credit) 등을 포함함
 자료: Taiwan Insurance Institute(2024), "Direct Written Premiums by Line of Business(2019-2023)"

- 2023년 기준 대만 손해보험시장의 상위 5개 회사의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61.5%로 나타났으며, 수입 보험료는 1,682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7% 성장함
 - 2023년 기준 Fubon Insurance가 대만 손해보험시장에서 23.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23년 원수보험료는 580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성장하였음
 - MSIC Mingtai Insurance는 2023년 7.2%로 시장점유율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7.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위 10개 손해보험회사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2023년 대만 손해보험시장은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위 10개 회사 모두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24년 기준 대만에서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5개의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2.3%를 차지하며 전년(61.3%) 대비 소폭 상승함
 - 2024년 기준, Fubon Insurance가 대만 생명보험시장 전체 수입보험료의 23.9%를 차지하며 업계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2% 성장함
 - Cathay Century Insurance, Shinkong Insurance, Tokio Marine Nawa Insurance, MSIG Mingtai Insurance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13.6%, 9.7%, 7.8%, 7.3%임
 - 대만의 상위 10개의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사가 모두 성장세를 기록함

- 특히 Tokio Marine Nawa Insurance(13.8%), Cathay Century Insurance(13.5%), Taian Insurance(13.0%) 등이 두드러진 성장률을 보임
- Mega Financial Holding은 0.4% 성장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기록함

〈표 III-9〉 대만 손해보험시장 상위 5개사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대만 달러, %)

순위	회사명	2023년		2024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Fubon Insurance Company	58,000	23.7	64,511	23.9	11.2
2	Cathay Century Insurance	32,380	13.2	36,749	13.6	13.5
3	Shinkong Insurance	24,100	9.6	26,287	9.7	9.1
4	Tokio Marine Nawa Insurance	18,512	7.6	21,062	7.8	13.8
5	MSIG Mingtai Insurance	17,580	7.2	19,598	7.3	11.5
손해보험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		150,572	61.3	168,207	62.3	11.7
손해보험 상위 10개사 시장점유율		210,176	85.7	270,221	86.1	10.4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3년 대만 손해보험업권의 자산운용은 유가증권과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만 손해보험업권의 운용자산 총액은 2,912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함
- 2023년 대만 손해보험업권의 전체 운용자산에서 유가증권 비중이 41.86%로 가장 높으며 현금 및 예치금(24.78%), 해외투자(15.17%)가 그 뒤를 이음
- 대만 손해보험업권의 해외투자의 비중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임
- 대출채권의 경우 자산운용의 규모가 201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운용자산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 2023년 기타 승인된 자금운용 규모는 81억 대만 달러로 2022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대만 손해보험시장의 대체투자 확대 가능성을 시사함

〈표 III-10〉 대만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및 비중

(단위: 백만 대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Cash & Cash in bank)	금액	57,316	61,240	68,931	68,806	72,149
	비중	20.18	20.39	20.74	25.45	24.78
유가증권 (Securities)	금액	124,880	136,190	155,890	101,366	121,896
	비중	43.98	45.33	46.91	37.49	41.86
부동산 (Property)	금액	37,190	38,582	39,751	39,286	40,057
	비중	13.10	12.84	11.96	14.53	13.76
대출채권 (Loans)	금액	467	445	403	306	230
	비중	0.16	0.15	0.12	0.11	0.08
해외투자 (Foreign Investment)	금액	59,383	58,757	62,889	44,497	44,187
	비중	20.91	19.56	18.92	16.46	15.17
기타 승인된 자금운용 (Other utilizations of capital(Approved))	금액	0	0	189	11,985	8,101
	비중	0.00	0.00	0.06	4.43	2.78
기타 (Others)	금액	4,734	5,203	4,293	4,112	4,593
	비중	1.67	1.73	1.29	1.53	1.57
총계	금액	283,979	300,417	332,346	270,358	291,213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Taiwan Insurance Institute(2024), "Investment Portfolio of Non-Life Insurance Industry(2011~NOW)"

○ 대만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에서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

- 대만 손해보험시장에서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보험중개인 비중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 대만 손해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

(단위: %)

채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험설계사(Agents)	30.8	30.0	28.6	34.3
보험중개인(Brokers)	10.2	9.8	9.3	10.8
기타	59.0	60.2	62.1	54.9

주: 2025년 기준 업데이트된 판매채널시장 자료는 2021년이 가장 최신 자료임
 자료: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IV

홍콩¹⁾

1. 보험시장 현황

- 2023년 홍콩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9%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6위를 차지함
 - Swiss Re에 따르면 2023년 홍콩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약 657억 미국 달러이며, 아시아 시장 가운데서는 일본, 한국, 대만, 호주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임
 - 업권별 구분 시 홍콩 생명보험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하여 11위 규모이고, 손해보험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0.2%를 차지하여 33위 규모임
- 2023년 홍콩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17.2%이고 보험밀도는 8,769달러로 매우 높은 편임
 - 2023년 홍콩 보험산업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시장이 약 14.8%, 손해보험시장이 약 2.3%임
 - 2023년 홍콩 보험산업 보험밀도는 생명보험시장이 7,574달러, 손해보험시장이 1,195달러임
- 홍콩 보험시장은 2023년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권이 전체 시장의 약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님
 - 전체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이 87.6%, 손해보험이 12.4%를 차지하였으며, 2019~2023년간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고, 생명보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손해보험시장의 비중 확대는 시장금리로 인한 영향이 크며 코로나19 기간 중 유지된 저금리 환경이 생명보험에는 대체로 악재로 작용한 반면, 손해보험에는 호재로 작용함
 - 홍콩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소폭 축소된 모습을 나타낸 이후 최근 회복 중임

1) 원문은 해외보험리포트: 홍콩(부록: 마카오) 편(2025. 9. 9.)이며, 저자는 김혜란, 홍보배임

〈표 IV-1〉 홍콩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홍콩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험료	생명보험	511,452(90.2)	521,451(89.6)	520,086(89.4)	473,598(88.0)	474,784(87.6)
	손해보험	55,669(9.8)	60,297(10.4)	61,835(10.6)	64,624(12.0)	67,302(12.4)
	전체	567,121	581,748	581,921	538,222	542,086
실질 GDP 성장률	-1.7	-6.5	+6.5	-3.7	+3.2	
보험료 성장률	-	2.6	0.0	-7.5	0.7	

주: 1) 괄호 안은 구성비임

2) 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를,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Insurance Authority, Market & Industry Statistics;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Statistics

○ 2023년 기준 홍콩에는 총 157개의 (재)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홍콩 자국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다국적 보험그룹의 지점 및 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보험회사 157개 중 손해보험회사가 87개, 생명보험회사가 52개, 생명·손해보험 겸영회사가 18개이며, 2021년 이후 보험회사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전체 보험회사 중 홍콩 자국 보험회사는 92개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며, 이외에 버뮤다, 영국, 미국 등에 본사를 둔 외국계 보험회사들도 다수 영업 중임

2. 생명보험

○ 2023년 홍콩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4,748억 홍콩달러임

- 2023년에는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밑도는 수치임
 -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및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각각 -0.3%, -8.9%의 성장률을 보임
- 홍콩 생명보험산업의 2021년 영업이익(101억 홍콩달러)은 2019~2023년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반등했으나 2023년에 다시 감소하는 등 수익 구조의 안정성이 여전히 업권의 과제임

〈표 IV-2〉 홍콩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GDP 성장률, 영업이익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홍콩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보험료	금액	511,452	521,451	520,086	473,598	474,784
	성장률	10.8	2.0	-0.3	-8.9	0.3
영업이익	금액	1,395	1,516	1,011	1,368	1,251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Insurance Authority Market & Industry Statistics; Annual Long Term Business Statistics 2021~2023, 각 연도

○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 개인형 생명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생명보험상품은 개인형, 단체형, 퇴직연금, 연금 및 기타 상품으로 구분되며, 이 중 개인형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4,265억 홍콩달러로 전체의 89.8%의 비중을 차지함
 - 개인형 생명보험 내에서는 특히, 비연계형²⁾ 생명보험이 3,932억 홍콩달러로 82.8%를 차지함
 - 비연계형 중 종신보험(2,932억 홍콩달러)이 주력상품이며, 그 뒤를 저축성보험, 정기보험 등이 이음
 - 반면, 연계형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32억 홍콩달러로,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점유율이 1.1%p 감소하였음
- 단체형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51.9억 홍콩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1.1% 점유율을 유지함
- 퇴직연금보험은 69.5억 홍콩달러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부 제도 변화나 고용 시장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표 IV-3〉 홍콩 생명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점유율

(단위: 백만 홍콩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보험료	시장점유율	보험료	시장점유율
개인형	424,289	89.6	426,503	89.8
단체형	4,993	1.1	5,194	1.1
퇴직연금보험	7,832	1.7	6,945	1.5
연금 및 기타 생명보험	36,484	7.5	36,142	7.6
합계	476,598	100.0	474,7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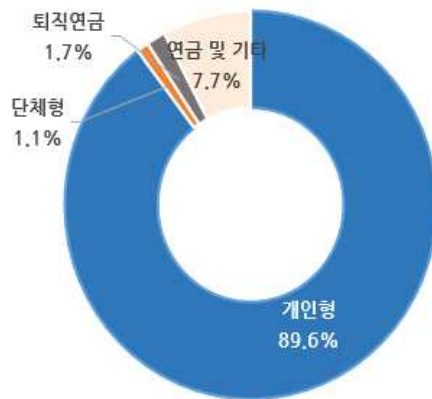
2) 비연계형(Non-linked) 생명보험상품은 보험계약의 보험금·해약환급금이 주식·펀드·채권 등의 투자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임

〈표 IV-3〉 계속

구분	2022년		2023년	
	보험료	시장점유율	보험료	시장점유율
개인형	424,289	100.0	426,503	100.0
비연계형 생명보험	385,736	90.9	393,219	92.2
중신보험	295,641	69.7	293,176	68.7
저축성보험	41,556	9.8	52,755	12.4
정기보험	6,073	1.4	6,232	1.5
기타	42,467	10.0	41,056	9.6
연계형 생명보험	38,553	9.1	33,284	7.8

자료: Insurance Authority, Market & Industry Statistics: Annual Long Term Business Statistics 2023

〈그림 IV-1〉 홍콩 생명보험상품군별 보험료 비중(2023년)



자료: Insurance Authority, Market & Industry Statistics: Annual Long Term Business Statistics 2023

- 2022년 기준, 홍콩에는 총 7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수의 대형 보험회사가 전체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임
 -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 홍콩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순위를 살펴보면 AIA International이 18.3%로 업계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그 뒤를 Prudential Hong Kong, HSBC Life, Manu Life, China Life 등이 따르고 있음
 - 이들 상위 5개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홍콩 생명보험시장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회

사를 합산할 경우 해당 점유율은 84.3%에 달함

- 홍콩 생명보험 시장은 상위 대형 보험회사 중심의 시장 집중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7.9%에서 63.0%로 소폭 하락했으나, 상위 10개 회사의 점유율은 86.0%에서 86.6%로 소폭 상승하며, 시장집중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러한 시장집중도는 ① 상위 보험회사들이 중국 본토 방문 고객 대상 보험영업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② 전속설계사 조직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 ③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 및 규모를 보험회사 선택 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는 시장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한편, 2023년 기준으로 총 11개의 생명보험회사가 100억 홍콩달러 이상의 보유계약 보험료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보험회사는 시장 전체의 89.6%를 차지함³⁾

〈표 IV-4〉 홍콩 생명보험 상위 5개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2023년)

(단위: 백만 홍콩달러, %)

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AIA International	87,083	18.3
2	Prudential Hong Kong	65,252	13.7
3	HSBC Life International	55,472	11.7
4	Manu life International	49,804	10.5
5	China Life	32,998	7.0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290,609	61.2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400,101	84.3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홍콩 생명보험시장은 전통적인 대면 중심의 시장으로서, 2022년 기준 판매채널 중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뒤로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 직접판매 순임
 - 방카슈랑스와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각각 52.8%, 27.6%로, 두 채널의 합산 비중은 80%임
 - 2018~2022년 기간 동안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은 10%p 이상 증가한 반면,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인의 비중은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보험설계사는 중국 본토 방문객 대상 보험영업의 주요 채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3년 동안 해당 수요가 거의 사라지며 큰 타격을 받았음
 - 직접판매 채널의 비중은 2018~2022년 기간 동안 1~4%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로이즈(Lloyd's) 및 10개의 순재보험회사(Pure reinsurers)는 제외한 수치임

〈표 IV-5〉 홍콩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18~2022년)

(단위: %)

채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39.8	40.9	43.4	40.5	52.8
보험설계사(Agent)	38.5	34.0	30.6	36.6	27.6
보험중개인(Broker)	20.7	23.0	22.0	19.1	16.7
직접판매(Direct)	1.0	2.2	4.0	3.9	2.9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3. 손해보험

- 홍콩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2023년 673억 홍콩달러를 기록하였고,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함
 - 개인 상해·건강보험(Personal Accident and Healthcare) 부문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22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19~2023년 홍콩 손해보험시장 영업이익은 모두 양의 수치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79.8%)으로 감소함
 - 2023년의 영업이익 감소는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의료비 청구 증가, 태풍 사올라 등과 같은 극한기상 조건 등의 영향에 기인함

〈표 IV-6〉 홍콩 손해보험업권 원수보험료, 영업이익, 손해율 변화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홍콩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손해보험 전체	금액	55,669	60,297	61,835	64,624	67,302
	성장률	3.9	8.3	2.6	4.5	4.1
개인상해· 건강보험	금액	18,332(32.9)	17,581(29.2)	17,558(28.4)	19,015(29.4)	21,332(31.7)
	성장률	7.0	-4.1	-0.1	8.3	12.2
개인상해· 건강보험 제외	금액	37,337(67.1)	42,715(70.8)	44,276(71.6)	45,609(70.6)	45,971(68.3)
	성장률	2.5	14.4	3.7	3.0	0.8
영업이익	금액	1,127	2,232	1,958	4,186	846
손해율	-	62.3	59.0	61.5	54.8	62.8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Insurance Authority, Market & Industry Statistics; Annual General Business Statistics 2019-2023, 각 연도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홍콩 손해보험시장은 상해·건강보험, 재산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비중이 높고, 상품별로 다소 상이한 성장 양상을 보임

- 2023년 보험료 기준으로 상해·건강보험이 전체의 31.7%, 재산보험이 22.2%, 일반배상책임보험이 22.0%를 차지하며, 이들 세 상품군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약 76%를 구성함
- 동 기간, 상해·건강보험과 일반배상책임보험, 항공기·선박보험 등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화물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나타냄
 - 상해·건강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19년 183억 홍콩달러에서 2023년 213억 홍콩달러로 증가, 연평균 3.9%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함
 - 항공기·선박보험 역시 국제 운송 회복 및 항공·해상 물류 증가에 따른 리스크 대비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23년 보험료는 35억 홍콩달러로, 2019년 대비 약 24% 증가함
 - 반면, 자동차보험은 2019년 62억 홍콩달러에서 2023년 55억 홍콩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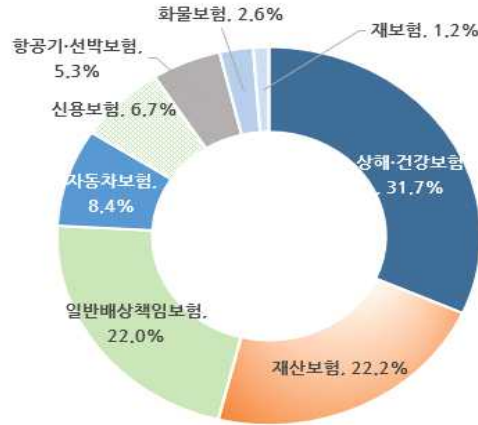
〈표 IV-7〉 홍콩 손해보험 주요 상품별 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홍콩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해·건강보험	금액	18,332	17,581	17,558	19,015	21,332
	성장률	7.0	-4.1	-0.1	8.3	12.2
자동차보험	금액	6,243	6,264	5,421	5,352	5,624
	성장률	0.5	0.3	-13.5	-1.3	5.1
항공기·선박보험	금액	2,864	2,997	3,171	3,448	3,571
	성장률	10.8	4.6	5.8	8.7	3.6
화물보험	금액	1,551	1,559	1,652	1,867	1,724
	성장률	-0.8	0.5	6.0	13.1	-7.7
재산보험	금액	10,240	12,443	13,212	13,550	14,916
	성장률	10.4	21.5	6.2	2.6	10.1
일반배상책임보험	금액	12,700	13,930	14,173	14,993	14,815
	성장률	-3.0	9.7	1.7	5.8	-12
신용보험	금액	2,900	4,704	5,870	5,615	4,517
	성장률	-3.9	62.2	24.8	-4.3	-19.6
재보험	금액	840	819	777	784	804
	성장률	24.9	-2.5	-5.1	0.8	2.6

자료: Insurance Authority, Market & Industry Statistics: Annual General Business Statistics 2019~2023, 각 연도

〈그림 IV-2〉 홍콩 손해보험상품별 보험료 비중(2023년)



자료: Insurance Authority, Market & Industry Statistics; Annual General Business Statistics 2023

○ 2023년 기준, 홍콩의 손해보험시장에는 총 87개의 보험회사가 운영 중이며, 특정 소수 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이 특징임

- 홍콩의 손해보험회사는 다국적 보험그룹의 지점 및 자회사, 중국 본토계 보험회사, 방카슈랑스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상위 5개, 10개, 20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6.0%, 41.5%, 64.0%로 과점화가 심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AXA General Insurance Hong Kong Limited가 시장점유율 7.1%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Bupa (Asia) Limited(6.1%), Zurich Insurance Company Ltd(4.4%), China Taiping Insurance (HK) Company Limited(4.3%)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표 IV-8〉 홍콩 손해보험시장 주요 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2022~2023년)

(단위: 백만 홍콩달러, %, %p)

순위	회사명	2022년		2023년		점유율 변화율
		원수보험료(A)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B)	시장점유율	
1	AXA General Insurance Hong Kong Limited	4,459	6.9	4,778	7.1	0.2
2	Bupa (Asia) Limited	4,071	6.3	4,105	6.1	-0.2
3	Zurich Insurance Company Ltd	2,585	4.0	2,961	4.4	0.4
4	China Taiping Insurance (HK) Company Limited	2,714	4.2	2,894	4.3	0.1
5	Asia Insurance Company Ltd	2,068	3.2	2,759	4.1	0.9
5개 회사 합계		15,897	24.6	17,497	26.0	-1.4

자료: Insurance Authority, Market & Industry Statistics; Annual General Business Statistics 2022, 2023

○ 2022년 홍콩 손해보험 시장의 판매채널별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중개인이 5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 온라인, 직접판매 순으로 나타남

- 홍콩 손해보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채널은 보험중개인과 보험설계사로, 2022년 두 채널의 합산 비중은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약 80%를 차지함
- 은행과 보험회사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비중은 홍콩 손해보험시장에서 약 10% 수준이며, 직접판매 채널 역시 전체의 약 9%를 차지함

〈표 IV-9〉 홍콩 손해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20~2022년)

(단위: %)

채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보험중개인(Brokers)	54.0	52.0	52.5
보험설계사(Agents)	29.0	28.0	27.3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9.0	9.0	9.7
직접판매(Direct)	7.0	9.8	9.2
온라인	1.0	1.2	1.3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V

마카오¹⁾

1. 보험시장 현황

- 2022년 마카오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47.4억 미국 달러이며, 세계 보험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임
 - 업권별 구분 시 마카오 생명보험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37위를 차지하고 손해보험시장은 96위로, 아시아 시장 가운데서도 규모가 작은 시장임²⁾
- 2022년 마카오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21.6%이고 보험밀도는 6,823 미국 달러로 매우 높은 편임
 - 2022년 마카오 보험산업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시장이 약 20.1%, 손해보험시장이 약 1.3%임
 - 2022년 마카오 보험산업 보험밀도는 생명보험시장이 6,360 미국 달러, 손해보험시장이 422 미국 달러임
- 마카오 보험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 부문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님
 - 2022년 마카오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약 382.5억 MOP로 전년(358.9억 MOP) 대비 6.6% 증가하였음
 - 2018~2022년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 15.9%를 달성함
 - 코로나19 기간 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 방문객에게 국경을 닫은 반면, 마카오는 특히 2022년에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이에 따라 홍콩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잠재적 보험 가입자들이 마카오로 향했음
 - 2022년 마카오 전체 보험시장은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이 93.2%, 손해보험이 6.8%를 차지함
 - 2019~2022년간 생명보험이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손해보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1) 원문은 해외보험리포트: 홍콩(부록: 마카오) 편(2025. 9. 9.)이며, 저자는 김혜란, 홍보배임

2) 2021년 기준임

(표 V-1) 마카오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2018~2022년)

(단위: 백만 MOP,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험료	생명보험	18,665(88.2)	25,577(89.9)	26,261(90.5)	33,025(92.0)	35,656(93.2)
	손해보험	2,499(11.8)	2,887(10.1)	2,758(9.5)	2,861(8.0)	2,598(6.8)
	전체	21,164	28,465	29,019	35,885	38,254
보험료 성장률	-	34.5	1.9	23.7	6.6	

주: 1) 괄호 안은 구성비임

2) 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를,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Macau Insurer's Association

○ 2022년 기준, 마카오에는 총 26개의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생명보험회사는 12개, 손해보험회사가 14개임

- 26개 보험회사 중 10개는 마카오 현지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나머지 16개는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임
 - 이 중 대부분의 외국계 보험회사는 홍콩계로, 이는 마카오와 인접해 있어 보험 및 재보험 역량과 기술 전문성을 제공함
 - 또한 일부 보험회사는 은행이 소유하고 있거나,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그룹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마카오에는 공식 인가를 받은 전문 재보험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 내 주요 재보험회사 중 하나인 태평재보험(Taiping Re)은 마카오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인수업무는 홍콩에서 수행하고 있음

2. 생명보험

○ 2022년 마카오 생명보험시장의 총수입보험료는 356.6억 MOP로 전년 대비 8.0% 증가함

- 2018년(-5.0%)을 제외하면 2018~2022년 동안 수입보험료는 연도별로 모두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감
 - 특히, 2019년(37.0%)과 2021년(25.8%)에는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달성함

〈표 V-2〉 마카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GDP 성장률, 영업이익 추이(2018~2022년)

(단위: 백만 MOP,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보험료	금액	18,665	25,577	26,261	33,025	35,656
	성장률	-5.0	37.0	2.7	25.8	8.0
명목 GDP 성장률		10.2	-0.2	54.4	18.6	-26.5

자료: AXCO(2025), "Special Report: A combined Non-Life and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 for Macao"

○ 2022년 마카오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수입보험료 기준, 개인형 생명보험이 전체 시장의 95.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마카오 생명보험상품은 크게 개인형과 단체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개인형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4 1.1억 MOP에 달함
 - 단체형 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5.4억 MOP로 전년 대비 2.8%p 증가, 전체 시장의 4.3% 점유율을 유지함
- 개인형 생명보험상품 중에서는 특히, 종신보험(44.1%)과 저축성보험(37.0%)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두 상품의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함
 - 연금보험은 약 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변액보험(1.1%)과 유니버설 보험(0.8%)은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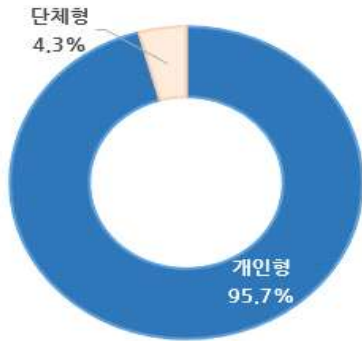
〈표 V-3〉 마카오 생명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점유율

(단위: 백만 MO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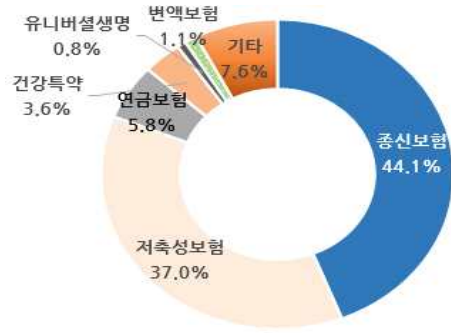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보험료	시장점유율	보험료	시장점유율
개인형	32,530	98.5	34,112	95.7
종신보험	10,495	32.3	15,030	44.1
저축성보험	15,936	49.0	12,632	37.0
연금보험	1,581	4.9	1,968	5.8
건강특약	1,169	3.6	1,216	3.6
변액보험	498	1.5	383	1.1
유니버설보험	310	1.0	281	0.8
기타	2,541	7.8	2,603	7.6
단체형	495	1.5	1,544	4.3
합계	33,025	100.0	35,656	100.0

자료: AXCO(2025), "Special Report: A combined Non-Life and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 for Macao"

〈그림 V-1〉 생명보험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그림 V-2〉 개인형 생명보험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자료: AXCO(2025), "Special Report: A combined Non-Life and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 for Macao"



자료: AXCO(2025), "Special Report: A combined Non-Life and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 for Macao"

○ 2022년 기준 마카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는 12개이며,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홍콩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의 지점 또는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음

-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마카오 생명보험회사의 점유율 순위를 살펴보면 AIA International이 전체 시장의 27.3%로 업계의 선두 자리를 차지함
 - 그 뒤를 China Life, YF Life, China Taiping Life, AXA China Region 등이 따르고 있음
- 홍콩과 마찬가지로 마카오 생명보험시장에서도 상위 대형 보험회사 중심의 시장 집중 현상이 나타남
 - 상위 3개, 5개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마카오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64.1%, 84.6%를 차지함
 - 2018~2022년간 상위 3개,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94.2%, 84.5%에서 84.6%, 64.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나, 시장 집중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V-4〉 마카오 생명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2021~2022년)

(단위: 백만 MOP, %, %p)

순위	회사명	2021년	2022년		점유율 증가율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AIA International	9,064	9,724	27.3	-0.2
2	China Life Insurance (Overseas)	11,804	8,550	24.0	-11.8
3	YF Life Insurance International	4,234	4,594	12.9	+0.1
4	China Taiping Life Insurance (Macau)	2,194	4,485	12.6	+5.9
5	AXA China Region Insurance (Bermuda)	2,191	2,799	7.9	+1.2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29,487	30,152	84.6	-
전체 생명보험회사		33,025	35,656	100.0	-

자료: AXCO(2025), "Special Report: A combined Non-Life and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 for Macao"

○ 생명보험 신계약의 45.8%는 방카슈랑스, 34.9%는 보험설계사, 12.9%는 보험중개인, 6.3%는 직접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됨

- 방카슈랑스 채널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주된 이유는, 단기 예금 대체용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능력에 있으며, 이들 상품은 종종 보험료 대출³⁾과 결합되어 판매되기 때문임
- 또한, 보험설계사의 비중도 높은 편인데 이는 마카오가 소규모 밀집형 사회로, 개인 간 관계와 대면 접촉 중심의 영업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을 반영함
 - 일부 설계사 및 대리점은 중국 본토 방문객을 마카오로 유치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데 특화됨
- 보험중개인(Broker)은 주로 직원 복리후생(Employee benefits) 및 직장 기반의 자발적 보험상품(근로자 개인형 상품) 판매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음

3. 손해보험

○ 2022년 마카오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26억 MOP로, 시장규모로 평가할 때 아직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마카오 손해보험시장의 전체 원수보험료는 2018년 25.0억 MOP에서 2022년 26.0억 MOP로, 5년간 소폭 증가하였음

³⁾ 보험료 대출(Premium Financing)은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보험 자금 조달 방법이며, 대출의 담보로 보험 증권상의 권리(전체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보험 증권 상의 권리를 잃게 됨. 이 방식은 주로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예: 생명보험)에 사용됨

- 개인상해·건강보험을 제외한 원수보험료는 2018년 21.6억 MOP에서 2022년 23.7억 MOP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

〈표 V-5〉 마카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2018~2022년)

(단위: 백만 MOP,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손해보험 전체	금액	2,499	2,887	2,758	2,861	2,598
	성장률	-	15.5	-4.5	3.7	-9.2
개인상해· 건강보험 제외	금액	2,164	2,532	2,465	2,606	2,368
	성장률	-	17.0	-2.6	5.7	-9.1
개인상해· 건강보험	금액	335	356	293	255	230
	성장률	-	6.2	-17.6	-13.1	-9.7
명목 GDP 성장률		10.2	-0.2	54.4	18.6	-26.5

자료: AXCO(2025), "Special Report: A combined Non-Life and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 for Macao"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카오 손해보험시장은 재산보험, 산재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상품별로 보험료 성장률의 연도 간 변동성 또한 높음

- 2022년 보험료 기준, 재산보험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4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산재보험(17.4%), 자동차보험(11.7%)이 잇고 있음
 - 이들 상위 3개 상품군이 전체 마카오 손해보험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며, 시장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재산보험을 포함하여 전 상품군에서 전년 대비 보험료 감소세를 기록함
 - 재산보험은 전년 대비 -2.8%, 산재보험은 -13.4%, 자동차보험은 -3.8%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 둔화, 건설·운송 등 주요 산업활동 위축,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의 소비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됨

〈표 V-6〉 마카오 손해보험 주요 상품별 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2018~2022년)

(단위: 백만 MO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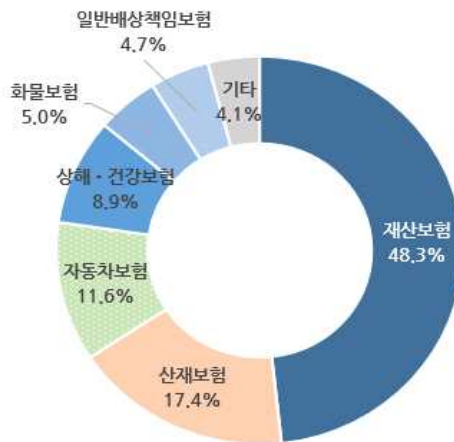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해·건강보험	금액	335	356	293	255	230
	성장률	-	6.2	-17.6	-13.1	-9.7
재산보험	금액	1,084	1,209	1,251	1,291	1,254
	성장률	-	11.6	3.4	3.2	-2.8
산재보험	금액	496	564	519	523	453
	성장률	-	13.7	-8.0	0.7	-13.4

〈표 V-6〉 계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동차보험	금액	296	313	312	314	302
	성장률	-	5.7	-0.3	0.6	-3.8
화물보험	금액	113	255	191	243	130
	성장률	-	125.3	-25.2	27.0	-46.6
일반배상책임보험	금액	113	124	129	128	123
	성장률	-	10.6	3.4	-0.9	-3.6
기타 보험	금액	63	66	64	109	107
	성장률	-	4.2	-3.3	72.0	-2.4

자료: AXCO(2025), "Special Report: A combined Non-Life and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 for Macao"

〈그림 V-3〉 마카오 손해보험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자료: AXCO(2025), "Special Report: A combined Non-Life and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 for Macao"

- 2022년 기준, 마카오 손해보험시장에는 총 14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위 3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집중도가 높음
 - 마카오의 손해보험회사는 다국적 보험그룹의 지점 또는 자회사, 중국계 보험회사, 현지 기반의 보험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상위 3개 및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5.5%, 80.6%로 높은 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개별 보험회사 기준으로는 2022년 마카오 손해보험시장 내 시장점유율 1위 보험회사는 China Taiping Insurance로, 전체 시장의 33.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그 뒤를 Luen Fung Hang Insurance(22.4%), Macau Insurance(9.7%), Asia Insurance(9.4%), Fidelidade Macau Insurance(5.8%) 등이 따르며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표 V-7〉 마카오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2021~2022년)

(단위: 백만 MOP, %, %p)

순위	회사명	2021년	2022년		점유율 증가율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China Taiping Insurance (Macau)	989	865	33.3	-1.3
2	Luen Fung Hang Insurance	628	583	22.4	0.5
3	Macau Insurance	298	253	9.7	-0.7
4	Asia Insurance	261	243	9.4	0.2
5	Fidelidade Macau Insurance	145	150	5.8	0.7
6	MSIG Insurance (Hong Kong)	148	144	5.6	0.4
7	Min Xin Insurance	113	124	4.8	0.8
8	Chubb Insurance Macau	55	58	2.2	0.3
9	AIG Insurance Hong Kong	84	55	2.1	-0.8
10	QBE General Insurance (Hong Kong)	50	50	1.9	0.2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		2,861	2,598	100	-

자료: AXCO(2025), "Special Report: A combined Non-Life and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 for Macao"

○ 2022년 마카오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특히 개인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상품에서 보험설계사·대리점 (Agent)이 주요한 판매채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카오 손해보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채널은 보험중개인과 보험설계사로, 2022년 두 채널의 합산 비중은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약 80%를 차지함⁴⁾

4) AXCO(2025), "Special Report: A combined Non-Life and Life and Benefits market report for Macao"

VI

싱가포르¹⁾

1. 보험시장 현황

- 2023년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6%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22위를 차지함
 - 2023년 싱가포르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432억 달러로, 아시아 시장에서는 7위를 기록함
 - 업권별로 보면 싱가포르의 생명보험시장은 전 세계 생명보험료의 1.0%를 차지하여 세계 18위 규모이며, 손해보험시장은 전 세계 손해보험료의 0.3%를 차지하여 세계 25위 규모임
- 2023년 기준 싱가포르의 보험침투도는 9.2%이며, 보험밀도는 7,799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 (7.0%, 889달러)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
 - 업권별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이 7.4%, 손해보험이 약 1.8%이며, 보험밀도는 생명보험이 6,264달러, 손해보험이 1,536달러임
- 싱가포르 보험시장의 2023년 전체보험료는 431억 달러이며,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의 비중은 각각 69.6%, 30.4%로 최근 손해보험 비중이 증가함

〈표 VI-1〉 싱가포르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US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	22,074 (70.5)	27,024 (73.6)	34,643 (76.6)	33,146 (74.4)	30,040 (69.6)
손해보험	9,226 (29.5)	9,683 (26.4)	10,572 (23.4)	11,408 (25.6)	13,128 (30.4)
전체	31,299	36,706	45,215	44,555	43,168
보험료 성장률	1.8	17.3	23.2	-1.5	-3.1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1) 원문은 해외보험리포트: 싱가포르 편(2025. 11. 4.)이며, 저자는 강윤지(1), 김가현임

○ 2025년 기준 싱가포르에서는 115개의 (재)보험회사와 90개의 캡티브 보험회사²⁾가 영업 중이며, 아시아 최대 캡티브 보험시장 중 하나임

- 싱가포르는 홍콩·말레이시아와 더불어 아시아 최대 캡티브 보험시장 중 하나이며, 싱가포르에서 영업 중인 캡티브 보험회사 수는 총 90개로 생명보험회사 1개, 손해보험회사 82개, 생·손보 겸영회사 7개임
 -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 허브로서 보험산업 중 상당 부분이 역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보험회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개방적 금융구조와 규제 환경은 다국적 기업의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함

〈표 VI-2〉 싱가포르 보험회사 현황(2025년)

(단위: 개)

구분	원보험업			재보험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생·손보 겸영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생·손보 겸영
보험회사	16	51	9	4	26	9
캡티브 보험회사	1	82	7	-	-	-

자료: MAS(<https://eservices.mas.gov.fid/institution?sector=Insurance>)

2. 생명보험

○ 2023년 기준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0.5% 하락한 457억 싱가포르 달러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29.1%, 21.1%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10.5%로 크게 하락함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및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2023년 3,165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함

²⁾ 캡티브 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Company)는 모기업의 위험관리와 보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 설립하고 소유하여 운영하는 자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임

〈표 VI-3〉 싱가포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보험료	33,006 (-16.0)	42,610 (29.1)	51,618 (21.1)	51,123 (-1.0)	45,737 (-10.5)
총자산	255,876 (22.2)	300,164 (17.3)	318,588 (6.1)	297,221 (-6.7)	316,526 (6.5)

주: ()는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2023년 생명보험 보유계약은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이 각각 1, 2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생명보험 상품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양로보험, 상해·건강보험 등으로 분류되며, 2023년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가 125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의 45.1%를 차지함
- 2021년까지는 양로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저축성 상품보다 보장성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성장함

〈표 VI-4〉 싱가포르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종신보험	6,833 (41.3)	7,477 (33.7)	8,847 (37.1)	10,353 (40.4)	12,507 (45.1)
정기보험	1,094 (6.6)	1,211 (5.5)	1,295 (5.4)	1,430 (5.6)	1,568 (5.7)
양로보험	8,622 (52.1)	9,043 (40.8)	9,260 (38.8)	9,116 (35.6)	8,538 (30.8)
상해·건강보험 등	4,087 (19.8)	4,455 (20.1)	4,441 (18.6)	4,715 (18.4)	5,122 (18.5)
총수입보험료	16,553	22,186	23,843	25,614	27,735

주: 1) 개인 생명보험의 보유계약 기준으로 작성됨

2)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신규계약 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일시납 보험상품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신규계약 보험료 추이는 정기납 상품의 경우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일시납 상품은 2022년 들어 감소했으나 2018년 대비 64.6% 성장한 234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함
- 싱가포르 국민연금제도인 중앙적립기금(CPF)을 통한 일시납 보험 가입이 상당량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

가포르 및 주변 아시아 부유층이 상속·자산승계 목적으로 일시납 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표 VI-5〉 싱가포르 생명보험 신규계약 보험료 추이(2018~2022년)

(단위: 백만 SGD)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시납	14,215	12,485	18,364	25,842	23,399
정기납	3,536	4,150	3,529	4,147	4,163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3년 생명보험 상위 5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81.9%이며, 상위 10개 회사는 국내 보험회사(3개)와 외국 보험회사(7개)가 주도하고 있음

- 싱가포르 보험회사인 The Great Eastern Life가 27.6%로 업계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Prudential Assurance(17.7%), Manulife(16.1%), AIA Singapore(13.2%), Singapore Life(7.3%)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2023년 기준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3개의 국내 보험회사는 The Great Eastern Life(1위), Singapore Life(5위), Income Insurance(6위)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42.1%임
- 상위 10개의 보험회사에는 영국, 캐나다,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의 보험회사가 진입해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54.0%로 나타남

〈표 VI-6〉 싱가포르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SGD, %)

순위	회사명	2022년		2023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The Great Eastern Life(싱가포르)	14,586	28.3	14,102	27.6	-3.3
2	Prudential Assurance(영국)	8,416	16.3	9,051	17.7	7.5
3	Manulife(캐나다)	8,636	16.7	8,224	16.1	-4.8
4	AIA(홍콩)	6,517	12.6	6,750	13.2	3.6
5	Singapore Life(싱가포르)	3,906	7.6	3,751	7.3	-4.0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81.5		81.9		-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95.8		96.1		-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싱가포르 생명보험시장의 주요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 금융자문업자, 전속설계사임

- 2023년 판매채널 비중은 방카슈랑스 32.8%, 금융자문업자 31.7%, 전속설계사 31.3%, 온라인 4.4% 순임
 - 방카슈랑스는 판매 건수 기준으로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로 고액 상품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특히 금융자문업자의 비중은 2019년 24.7%에서 2023년 31.7%로 증가하여 전속설계사 비중을 상회함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이 고객 중심 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³⁾
- 온라인(Direct)은 코로나19 당시 온라인 판매의 증가로 2020년 8.1%로 증가한 이후 하락세를 보임

〈표 VI-7〉 싱가포르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19~2023년)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카슈랑스	36.0	29.2	32.1	31.6	32.8
금융자문업자	24.7	26.7	28.8	27.9	31.7
전속설계사	34.0	36.0	33.1	34.7	31.3
온라인(Direct)	5.2	8.1	6.0	5.7	4.4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싱가포르 생명보험산업의 총운용자산은 5년간 약 24% 성장하였으며, 채권과 주식의 비중이 높음

- 총운용자산은 2019년 2,559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2023년 3,165억 싱가포르 달러로 약 24% 증가함
- 2023년 기준 운용자산 중 채권이 1,557억 싱가포르 달러로 49.2%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이 1,210억 싱가포르 달러로 38.2%의 비중을 기록함
 - 2019년 대비 채권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주식 및 기타 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현금 및 예치금과 기타자산의 경우 비중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9년 대비 절대적인 금액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³⁾ 2013년 MAS는 싱가포르 금융자문산업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FAIR(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판매 수수료 상한제, 상담 품질·고객 보호 등이 포함된 성과지표 도입 등의 핵심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이후 보험회사들은 금융자문업자 채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MAS는 금융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노력함. 다만 일부 보험회사 소속 금융자문업자에 대해 여전히 판매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존재함

〈표 VI-8〉 싱가포르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5,428 (2.1)	8,726 (2.9)	7,541 (2.4)	9,968 (3.4)	7,969 (2.5)
주식	93,463 (36.5)	104,952 (35.0)	118,739 (37.3)	104,742 (35.2)	121,043 (38.2)
채권	133,953 (52.4)	157,585 (52.5)	163,783 (51.4)	151,900 (51.1)	155,683 (49.2)
대출	3,735 (1.5)	3,637 (1.2)	3,337 (1.0)	3,240 (1.1)	3,288 (1.0)
부동산	3,683 (1.4)	3,633 (1.2)	3,809 (1.2)	4,014 (1.4)	4,024 (1.3)
기타	15,613 (6.1)	21,631 (7.2)	21,380 (6.7)	23,358 (7.9)	24,519 (7.7)
총운용자산	255,876	300,164	318,588	297,221	316,526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3. 손해보험

○ 싱가포르 손해보험시장은 재보험, 캡티브 보험시장이 발달한 만큼 역외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역내 수입보험료는 56억, 역외 수입보험료는 174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함

-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싱가포르 역내 보험기금(Singapore Insurance Fund; SIF), 역외 보험기금(Offshore Insurance Fund; OIF)으로 구분되며, 특히 손해보험시장은 재보험·캡티브 보험의 발달로 역외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함
- 2023년 기준 역내 시장 수입보험료는 56억 싱가포르 달러, 역외 시장 수입보험료는 174억 싱가포르 달러로 역외 시장이 3배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역외 시장에서는 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94억 싱가포르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역내 시장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2022년 10.1%의 성장률을 보임
 - 역외 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로 2020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2023년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역대 128억 싱가포르 달러, 역외 418억 싱가포르 달러로 총자산의 규모는 두 시장 모두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표 VI-9〉 싱가포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역내	수입보험료	4,355.2 (6.7)	4,364.6 (0.2)	4,711.8 (8.0)	5,189.2 (10.1)	5,569.1 (7.3)	
	총자산	11,244.0 (3.3)	11,512.7 (2.4)	12,125.3 (5.3)	12,370.5 (2.0)	12,807.7 (3.5)	
역외	수입보험료	보험회사	3,854.4	4,234.0	4,740.4	5,426.8	6,128.2
		재보험회사	9,315.4	7,329.6	8,611.9	9,070.2	9,433.4
		캡티브	1,333.7	1,413.8	1,750.7	1,964.0	1,830.7
	총수입보험료	14,503.5 (13.8)	12,977.4 (-10.5)	15,103.0 (16.4)	16,461.0 (9.0)	17,392.3 (5.7)	
	총자산	29,717.8 (11.1)	30,781.9 (3.6)	37,151.9 (20.7)	39,227.5 (5.6)	41,797.6 (6.6)	

주: ()는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2023년 기준 역내 손해보험시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재물보험, 건강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11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1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물보험(15.4%), 건강보험(15.2%)이 뒤를 잇고 있음
- 자동차보험 비중은 2019년 대비 2023년에 2.3% 감소했으며, 그 외 다른 종목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은 의료비 증가와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하여 동기간 44%의 성장률을 보임
 - 재물보험은 부동산·인프라 투자 확대, 자연재해·기후리스크 보장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여 2019년 6.0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2023년 8.6억 싱가포르 달러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함
 - 일반책임보험은 2019년 대비 2023년에 55%가 성장하여 4.9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업의 활동 다변화, 규제 및 소송에 따른 위험 증가 등이 요인으로 작용함

〈표 VI-10〉 싱가포르 역대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동차	1,117 (25.6)	1,127 (25.8)	1,159 (24.6)	1,067 (20.6)	1,091 (19.6)
재물	603 (13.9)	667 (15.3)	781 (16.6)	841 (16.2)	860 (15.4)
건강	586 (13.5)	592 (13.6)	653 (13.9)	774 (14.9)	845 (15.2)
해상, 항공 및 교통	423 (9.7)	448 (10.3)	459 (9.7)	533 (10.3)	569 (10.2)
일반책임	317 (7.3)	365 (8.4)	413 (8.8)	462 (8.9)	499 (9.0)
배상책임	372 (8.5)	389 (8.9)	408 (8.7)	431 (8.3)	477 (8.6)
상해	383 (8.8)	237 (5.4)	223 (4.7)	388 (7.5)	453 (8.1)
보증 및 신용	270 (6.2)	229 (5.2)	227 (4.8)	269 (5.2)	312 (5.6)
기술	108 (2.5)	137 (3.1)	136 (2.9)	148 (2.9)	175 (3.2)
기타	176 (4.0)	174 (4.0)	253 (5.4)	273 (5.3)	287 (5.2)
총수입보험료	4,355	4,365	4,712	5,187	5,569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2023년 기준 역외 손해보험시장에서는 재물보험, 책임보험 및 기타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23년 재물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7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55.6%의 비중을 차지함
 - 역외 시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대규모 손실위험을 다루고 있어 재물보험의 비중이 높음
- 동기간 책임보험 및 기타 종목은 30억 싱가포르 달러로 17.2%의 비중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해상, 항공 및 교통(11.1%), 자동차(8.8%), 기술(7.2%) 순임
 - 특히 책임보험 및 기타의 비중은 2020년에 전년 대비 3%p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보임

〈표 VI-11〉 싱가포르 역외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2019~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물	8,273.5 (57.0)	6,638.8 (51.2)	8,116.7 (53.7)	9,003.9 (54.7)	9,672.9 (55.6)
책임보험 및 기타	2,126.1 (14.7)	2,297.5 (17.7)	2,751.7 (18.2)	2,920.5 (17.7)	2,991.9 (17.2)
해상, 항공 및 교통	1,586.4 (10.9)	1,487.5 (11.5)	1,646.7 (10.9)	1,887.6 (11.5)	1,937.9 (11.1)
자동차	1,651.3 (11.4)	1,763.4 (13.6)	1,520.8 (10.1)	1,498.6 (9.1)	1,538.4 (8.8)
기술	866.2 (6.0)	790.2 (6.1)	1,067.1 (7.1)	1,150.5 (7.0)	1,251.1 (7.2)
총수입보험료	14,503.5	12,977.4	15,103.0	16,461.1	17,392.2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 2024년 손해보험 상위 5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4.4%이며, 1위인 국내 보험회사를 제외하면 모두 외국 보험회사임

- 싱가포르 보험회사인 NTUC Income Insurance의 시장점유율이 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그 뒤로는 Cigna Europe Insurance(7.6%), AIG Asia Pacific Insurance(6.9%), Chubb Insurance(5.8%), MS First Capital Insurance(5.3%) 순임
- 1위를 차지하고 있는 NTUC Income Insurance를 제외하면 9개 회사는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외국 보험회사로 이루어져 있음
 - 일본계 보험회사의 경우 3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MS First Capital Insurance와 Tokio Marine Insurance은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독일계 보험회사인 Allianz는 56.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상위 10위권 회사 중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함

〈표 VI-12〉 싱가포르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SGD, %)

순위	회사명	2023년		2024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NTUC Income Insurance(싱가포르)	492	8.8	525	8.8	6.6
2	Cigna Europe Insurance(미국)	433	7.8	453	7.6	4.7
3	AIG Asia Pacific Insurance(미국)	398	7.1	409	6.9	2.9
4	Chubb Insurance(미국)	332	6.0	345	5.8	4.0
5	MS First Capital Insurance(일본)	278	5.0	315	5.3	13.6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34.7		34.4		-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53.2		54.2		-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싱가포르 손해보험시장은 보험중개인과 설계사가 주요 판매채널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보험중개인은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 및 대형 계약을 독점함
- 설계사 비중은 2023년 28%로 2021년 대비 5%p 감소하였으며, 손해보험 설계사 수도 2021년 4,105명에서 2023년 3,777명으로 감소함
- 온라인(Direct)은 2021년 12%에서 2023년 14%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보험이나 여행보험과 같은 저가형 보험에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표 VI-13〉 싱가포르 손해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21~2023년)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보험중개인	50	51	51
설계사	32	30	28
온라인(Direct)	12	13	14
방카슈랑스	6	6	7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싱가포르 역내·외 손해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은 2023년 기준 각각 128억, 418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역내 시장의 경우 2023년 기준 채권이 67억 싱가포르 달러(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

금 및 예치금이 30억 싱가포르 달러로 23.4%를 차지함

- 그다음으로는 기타 자산(16.0%), 주식(5.7%), 부동산(2.5%), 대출(0.1%) 순임

- 역외 시장의 경우 2023년 채권이 143억 싱가포르 달러로 3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자산이 104억 싱가포르 달러로 24.8%를 차지함

- 그다음으로는 주식(15.7%), 현금 및 예치금(13.5%), 대출(11.7%) 순임

- 재보험 미수금·예치금·파생상품 등 전통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산이 많아 기타 자산 비중이 높음

〈표 VI-14〉 싱가포르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 추이(2022~2023년)

(단위: 백만 SGD, %)

구분	역내		역외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2,911.1 (23.5)	2,990.8 (23.4)	5,457.4 (13.9)	5,645.1 (13.5)
주식	767.5 (6.2)	726.9 (5.7)	7,516.1 (19.2)	6,563.9 (15.7)
채권	6,338.9 (51.2)	6,704.8 (52.3)	12,969.4 (33.1)	14,332.1 (34.3)
대출	7.2 (0.1)	12.4 (0.1)	3,728.0 (9.5)	4,889.3 (11.7)
부동산	398.3 (3.2)	326.2 (2.5)	15.4 (0.0)	13.0 (0.0)
기타	1,947.5 (15.7)	2,046.6 (16.0)	9,541.2 (24.3)	10,354.2 (24.8)
합계	12,370.5	12,807.7	39,227.5	41,797.6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MAS, "Insurance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VII

인도네시아¹⁾

1. 보험시장 현황

- 2023년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전 세계 보험시장의 0.3%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34위를 기록함
 -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184억 달러로,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2위), 일본(4위), 한국(7위), 대만(14위), 싱가포르(22위), 말레이시아(32위) 등에 이어 열 번째로 큰 시장임
 -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전 세계 생명보험료의 0.4%를 차지하며 세계 31위, 손해보험은 전 세계 손해보험료의 0.2% 규모로 세계 38위에 위치함
-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보험침투도는 1.3%, 보험밀도는 66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889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업권별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이 약 0.8%, 손해보험이 약 0.6%이며, 보험밀도는 생명보험이 38달러, 손해보험이 28달러로 나타남
- 2023년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57.6%, 손해보험 4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생명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축소되는 흐름이 지속됨
 - 반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증가하며, 시장 비중 역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1) 원문은 해외보험리포트: 인도네시아 편(2025. 12. 26.)이며, 저자는 김유미, 손민숙임

〈표 VII-1〉 인도네시아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US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	16,362 (71.6)	14,866 (72.4)	13,210 (68.0)	11,718 (62.3)	10,576 (57.6)
손해보험	6,478 (28.4)	5,676 (27.6)	6,206 (32.0)	6,856 (37.7)	7,778 (42.4)
전체	22,840	20,542	19,417	18,574	18,353
보험료 성장률	3.5	-10.1	-5.5	-4.3	-1.2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총 147개의 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며, 이 중 생명보험회사 57개, 손해보험회사 78개, 재보험회사 8개가 활동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보험회사는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받아 설립되는 합작회사와 순수 인도네시아계 회사로 구분됨
 - 생명보험회사 57개 중 인도네시아계는 34개, 합작회사는 23개이며, 손해보험회사 78개 중 인도네시아계는 55개, 합작회사는 23개임
- 인도네시아에는 샤리아 생명보험회사 9개, 샤리아 손해보험회사 6개, 샤리아 재보험회사는 4개 등 총 59개의 샤리아 보험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샤리아 보험은 샤리아(Shariah) 원칙에 따라 가입자 간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보험회사는 위험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가입자의 기여금을 관리·운용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함
 - 이슬람 율법은 도박, 투기, 이자 수취,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금지하기 때문에 샤리아 보험회사는 주류·담배·돼지고기·군수산업 등 금기 산업에 투자할 수 없고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없음

2. 생명보험

- 2023년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177조 루피아를 기록함
 -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가계소득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1년에는 자본시장 회복과 투자연계형(Unit-linked) 보험상품 판매 확대의 영향으로 일시적 반등이 있었으나, 이후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됨
 - 2023년 생명보험 총자산은 619조 루피아로 보험산업 전체 자산의 72.7%를 차지함

〈표 VII-2〉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조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보험료	194.27 (-1.3)	185.84 (-4.3)	204.78 (10.2)	190.74 (-6.9)	176.90 (-7.3)
총자산	574.59	575.09	631.69	617.63	618.58

주: 1) 사리아 생명보험 포함

2) ()는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 사리아 생명보험을 제외한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61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7.5%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40조 루피아, 정기보험은 6.9% 증가한 18조 루피어를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두 번째로 큰 종목이며, 정기보험 비중은 11% 수준임
- 상해·건강보험은 의료비 상승과 건강 보장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20조 루피어를 기록함
- Unit-linked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47%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22년 규제 강화와 설계사 영업활동 위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0% 감소한 76조 루피어를 기록함

〈표 VII-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201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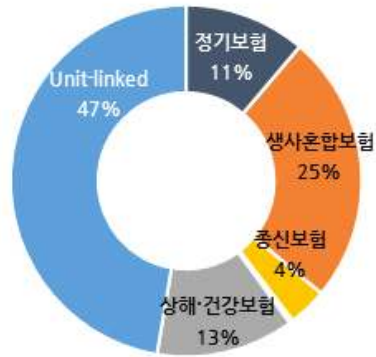
(단위: 십억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기보험	14,617 (17.6)	13,958 (-4.5)	17,391 (24.6)	16,852 (-3.1)	18,014 (6.9)
생사혼합보험	40,175 (-20.0)	32,398 (-18.4)	37,104 (13.1)	37,205 (0.3)	39,945 (7.4)
종신보험	2,601 (37.2)	3,020 (16.1)	3,205 (6.1)	4,251 (32.6)	5,767 (35.7)
연금보험	1,595 (17.6)	1,163 (-27.1)	794 (-31.7)	938 (18.1)	572 (-39.0)
상해·건강보험	12,262 (14.3)	12,284 (0.2)	14,179 (15.4)	17,014 (20.0)	20,406 (19.9)
Unit-linked	113,892 (10.9)	109,802 (-3.6)	114,425 (4.2)	97,636 (-14.7)	76,128 (-22.0)
합계	185,143 (3.2)	173,025 (-6.5)	186,642 (7.9)	173,896 (-6.8)	160,831 (-7.5)

주: ()는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그림 VII-1〉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 2023년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6.2%, 상위 10개사는 70.2%로 시장 집중도가 높은 편임
 - 상위 10개사 중 7개사가 외국-인도네시아 합작회사로, 합작 생명보험회사들의 지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상위 10개사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평균 -8.4%이며, 이 중 6개사는 보험료가 감소함

〈표 VII-4〉 인도네시아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십억 IDR, %)

순위	회사명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PT Prudential Life Assurance	합작	19,782	11.4	19,882	12.4	0.5
2	PT Asuransi Allianz Life Indonesia	합작	18,072	10.4	19,864	12.4	9.9
3	PT Indolife Pensionsama	인니계	12,186	7.0	11,993	7.5	-1.6
4	PT AXA Mandiri Financial Services	합작	12,225	7.0	11,704	7.3	-4.2
5	PT Asuransi BRI Life	합작	10,672	6.1	10,913	6.8	2.3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41.9		46.2		-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70.9		70.2		-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판매채널 중 방카슈랑스 비중이 48%로 가장 높고 보험설계사 채널이 29%로 뒤를 이음

-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투자연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다수의 은행과 제휴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투자연계형 보험상품은 일반 보장성보험보다 초기 사업비와 수수료가 높아 은행의 판매 유인으로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Unit-linked 판매가 더욱 확대됨

〈표 VII-5〉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17~2021년)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험설계사(Agent)	37	40	29	22	29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44	42	50	62	48
기타	18	18	21	16	23

주: 2025년 기준 업데이트된 판매채널시장 자료는 2021년이 가장 최신 자료임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운용자산은 채권과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운용자산 중 채권은 218조 루피아로 가장 높은 비중(42.0%)을 차지하였고 주식은 142조 루피아로 27.4%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임
- 2021년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뮤추얼 펀드는 글로벌 금리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투자연계형 보험상품 판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3.6%에서 2023년 14.5%로 크게 축소됨
- 대출자산 비중은 5% 미만으로 낮은 편이나 절대 규모는 2019년 대비 증가함
- 총운용자산은 2019년 484조 루피아에서 2023년 519조 루피아로 약 12% 성장함

〈표 VII-6〉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운용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십억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34,081 (7.0)	31,561 (6.7)	37,124 (7.1)	40,262 (7.8)	36,327 (7.0)
주식	147,502 (30.5)	137,900 (29.4)	142,747 (27.2)	148,586 (28.9)	142,410 (27.4)
뮤추얼 펀드	162,633 (33.6)	152,897 (32.6)	162,695 (31.0)	101,952 (19.8)	75,182 (14.5)
채권	110,196 (22.8)	121,607 (25.9)	139,200 (26.5)	178,776 (34.8)	217,936 (42.0)
대출	10,415 (2.2)	10,656 (2.3)	23,801 (4.5)	23,330 (4.5)	25,266 (4.9)

〈표 VII-6〉 계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동산	15,146 (3.1)	11,117 (2.4)	16,189 (3.1)	17,084 (3.3)	17,812 (3.4)
기타	3,794 (0.8)	3,779 (0.8)	3,798 (0.7)	4,307 (0.8)	4,313 (0.8)
총운용자산	483,767	469,517	525,554	514,297	519,246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 2023년 기준 샤리아 생명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050만 건으로 전체 생명보험의 25% 수준이며,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샤리아 생명보험 보험료는 2019년 14조 루피아에서 2023년 20조 루피아로 연평균 9.5% 증가했고 보험금 지급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0% 증가하여 17조 루피아를 기록함
 - 2023년 샤리아 생명보험 자산 규모는 33조 루피아이며, 투자 규모는 27조 루피아로 나타남

〈표 VII-7〉 인도네시아 샤리아 생명보험 통계(2019~2023년)

(단위: 건, 조 IDR)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유계약 수	11,953,610	9,501,106	6,602,085	11,576,603	10,504,591
보험료	13.96	15.01	20.65	21.33	20.06
보험금	9.24	11.57	18.46	17.64	17.33
투자 규모	34.4	31.57	29.48	29.09	26.67
자산 규모	37.89	36.17	34.61	34.95	32.88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3. 손해보험

- 2023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125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냄
 - 2023년 손해보험 총자산은 233조 루피아로 보험산업 전체 자산의 27.3%를 차지함

〈표 VII-8〉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조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원수보험료	89.52 (15.6)	92.51 (3.8)	91.09 (-2.0)	102.79 (12.8)	124.87 (21.5)
총자산	164.6	173.7	190.1	200.4	232.7

주: 1) 샤리아 손해보험 포함

2) ()는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 샤리아 손해보험을 제외한 2023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103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26.1% 증가함

- 손해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물보험은 누산타라 신수도(IKN)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와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수요 증가로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 세 번째 규모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 이후 신차 판매 회복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19조 루피아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제3자 책임보험(TPL)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기적으로 수요 확대가 전망됨
- 건설·기계보험은 도로·발전소·산업단지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에서의 보험 가입 요건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65.8% 증가함
- 해상·항공보험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9조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신용·보증보험도 전년 대비 39.5% 증가한 21조 루피아로 크게 증가함
- 상해·건강보험 비중은 10%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의료비 상승과 건강 보장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한 10조 루피아를 기록함

〈표 VII-9〉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2019~2023년)

(단위: 십억 IDR,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물	17,684 (7.3)	17,927 (1.4)	18,465 (3.0)	21,997 (19.1)	24,222 (10.1)
자동차	18,728 (0.8)	14,713 (-21.4)	15,455 (5.0)	17,790 (15.1)	19,424 (9.2)
해상·항공 등	6,697 (5.3)	6,652 (-0.7)	5,850 (-12.0)	7,929 (35.5)	9,308 (17.4)
건설·기계 등	2,720 (10.6)	2,361 (-13.2)	2,836 (20.1)	2,993 (5.5)	4,963 (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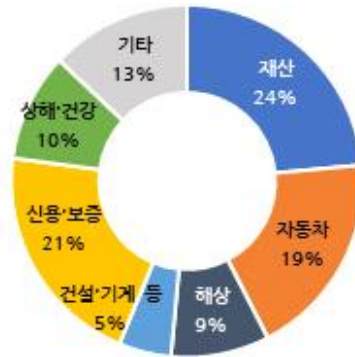
〈표 VII-9〉 계속

신용·보증	14,392 (54.9)	12,614 (-12.4)	15,074 (19.5)	15,339 (1.8)	21,392 (39.5)
상해·건강	6,125 (9.1)	7,077 (15.6)	7,196 (1.7)	8,255 (14.7)	10,230 (23.9)
기타	8,185 (7.4)	5,697 (-30.4)	6,395 (12.2)	7,299 (14.1)	13,340 (82.8)
합계	74,531 (12.2)	67,042 (-10.0)	71,271 (6.3)	81,602 (14.5)	102,879 (26.1)

주: ()는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그림 VII-2〉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 2023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31.3%, 상위 10개사는 49.1%로 생명보험에 비해 시장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생명보험과 달리 상위 10개사 중 8개사가 순수 인도네시아계 회사로 구성됨
 - 2023년 상위 10개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평균 -8.4%를 기록했으며, 이 중 6개사는 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VII-10〉 인도네시아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십억 IDR, %)

순위	회사명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PT Asuransi Sinar Mas	인니계	9,562	8.8	9,257	10.9	3.3
2	PT Asuransi Kredit Indonesia	인니계	7,303	6.7	5,923	7.0	23.3
3	PT Asuransi Astra Buana	인니계	6,787	6.2	5,667	6.7	20.0
4	PT Asuransi Bangun Askrida	인니계	5,512	5.1	5,220	6.1	5.6
5	PT Tugu Pratama Indonesia	합작	5,043	4.6	-	-	-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30.6		31.3		-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44.5		49.1		-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3년 손해보험 손해율은 62.6%로 전년 대비 5.4%p 상승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재물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에서 증가함

- 최근 5년간 손해율은 60% 내외에서 등락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까지 상승한 후 2022년에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23년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재물보험 지급보험금은 6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21.4% 감소했으나, 해상·항공보험(15.8%), 신용·보증보험(14.6%), 자동차보험(10.7%)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 의료비 상승, 기후 변화에 따른 질병 증가, 건강 보장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2019년 13.4%에서 2023년 16.4%로 확대됨

○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판매채널은 보험중개인과 보험설계사가 주요 채널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함

- 보험중개인 채널이 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어 보험설계사 28%, 직접판매 25.3% 순임
-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 비중은 낮지만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표 VII-11〉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2022~2023년)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보험중개인	33.3	31.0
보험설계사	32.3	28.0
직접판매	24.4	25.3
방카슈랑스	5.1	6.8
온라인	4.9	8.9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3년 손해보험 운용자산은 133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23년 채권 규모는 57조 루피아로, 운용자산 중 42.9%를 차지하며, 2019년 대비 16.2%p 증가함
 - 손해보험의 유동성 확보 특성으로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은 23.9%로 두 번째로 높지만, 소폭 축소됨
 - 대출과 부동산 비중은 각각 8.7%, 1.0%로 낮은 수준이나, 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16.9%, 17.1% 증가함

〈표 VII-12〉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운용자산 추이(2019~2023년)

(단위: 십억 SGD,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30,866 (33.7)	29,304 (30.9)	28,776 (27.5)	27,487 (24.9)	31,907 (23.9)
주식	4,996 (5.5)	5,126 (5.4)	6,045 (5.8)	5,510 (5.0)	5,715 (4.3)
뮤추얼 펀드	20,142 (22.0)	22,865 (24.1)	23,978 (22.9)	18,746 (17.0)	25,063 (18.8)
채권	24,412 (26.7)	25,763 (27.2)	33,980 (32.4)	46,890 (42.4)	57,200 (42.9)
대출	9,166 (10.0)	9,678 (10.2)	9,941 (9.5)	9,935 (9.0)	11,610 (8.7)
부동산	1,164 (1.3)	1,147 (1.2)	1,169 (1.1)	1,180 (1.1)	1,382 (1.0)
기타	789 (0.9)	871 (0.9)	856 (0.8)	759 (0.7)	399 (0.3)
총운용자산	91,534	94,753	104,744	110,507	133,277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OJK,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각 연도

- 2023년 사리아 손해보험의 시장 규모는 작지만, 최근 연평균 16.5%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2023년 보험료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5조 루피아를 기록한 반면, 지급보험금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2조 루피아로 나타남
 - 2023년 사리아 손해보험 자산 규모는 11조 루피아이며, 투자 규모는 9조 루피아로 나타남

〈표 VII-13〉 인도네시아 사리아 손해보험 통계(2019~2023년)

(단위: 조 IDR)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험료	2.79	2.51	3.22	4.73	5.14
보험금	1.44	1.51	1.82	2.31	2.30
투자 규모	5.49	5.67	6.03	7.33	8.59
자산 규모	7.91	8.12	8.53	9.89	11.45

주: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OJK(2024), "Statistik Perasuransian Insurance Statistics 2023"

2025 해외보험리포트 일본, 인도,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원센터널